

1일 Market Index	
코스피	코스닥
2505.01 (-30.28)	827.24 (-4.44)
금리 (미국 9년)	환율 (원·달러)
3.587 (+0.004)	1305.80 (+15.80)



자꾸 미뤄지는 연금개혁... '소득대체율 인하' 지적도

개혁 논의, 총선 이후 탄력 예상
모수조정 등 상세 결정 못해
'더 내고 더 받기-그대로 받기'
여야, 두가지 방향성 유력 검토

정치권 밖 "미래세대 부담 커
'더 내고 덜 받기'도 고려해야"

국민연금 연금개혁 논의가 내년 총선 이후로 미뤄질 전망이다.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두고 '더 내고 더 받기', '더 내고 그대로 받기'의 두 가지 안이 유력한 대안으로 검토되고 있지만 '더 내고 덜 받기'의 선택지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권에선 국회연금특위가 '연금개혁의 방향성을 결정한다'는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여야 모두 연금개혁의 필요에는 동의하지만 총선을 앞두고 모수(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조정을 비롯한 개혁안의 상세 내용을 결정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여야 모두 총선이 최대 화두인 만큼 연금개혁은 총선 이후에야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3일 정치권과 금융권에 따르면 현재 채택이 유력한 개혁안은 지난 16일 민간 자문위원회가 연금특위 전체 회의에 제출한 '더 내고 더 받기(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50%)', '더 내고 그대로 받기(보험료율 15%·소득대체율 40%)'의 두 가지 안이다. 하지만 정치권 바깥에서는 '더 내고 덜 받기(보험료율 소폭 인상·소득대체율 인하)'라는 선택지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10월 공개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에 따르면 국민연금 가입자와 수급자 2025명(가입

1957명, 수급 68명)을 대상으로 국민연금 연금개혁 필요성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81.3%가 국민연금의 연금개혁 필요성에 동의(다소 동의 50.1%, 매우 동의 31.2%)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금제도 개혁 방향성을 묻는 설문에서는 '더 내고 더 받아야 한다'라는 응답이 38%를 차지했다. '더 내고 덜 받아야 한다'라는 응답은 23.4%, '더 내고 지금만큼 받아야 한다'라는 응답은 21%였다. 특히 20대와 30대에서는 지금보다 더 내고 더 받아야 한다는 응답이 33.2%에 그쳐 '더 내고 더 받기' 연금개혁에 동의하는 비율이 낮았다.

전문가들은 미래세대의 부담을 줄이는 것이 연금개혁의 목적이야 한다고 강조한다.

한국경제학회가 지난 3월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국민연금 개혁' 설문에는 따르면 응답자(47명)의 84%(40명)는 연금개혁이 필요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 '미래세대의 부담이 너무 커지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또한 국민연금 개혁 방향성에 대해서는 '기여율 인상과 소득대체율 인하를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라는 응답이 29%(14명)로 가장 많았고, '소득대체율을 인하해야 한다'는 응답도 15%(7명)에 달했다.

기초연금이 국민연금의 역할을 일부 대체하고 있어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인하를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보험연구원은 최근 발표한 '기초연금 효과를 고려한 연금개혁 추진 필요' 보고서를 통해 기초연금 도입으로 공적 연금의 소득대체율이 이미 목표치를 상회하고 있어 재정안정 중심의 연금개혁



해군, SM-2 함대공 유도탄 국내 첫 발사 성공
해군은 1일 동해 해상에서 'SM-2 함대공 유도탄 미사일' 국내 첫 실사격 훈련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강감찬함(DDH-II)이 자함으로 고속 접근하는 적 항공기를 모사한 대공무인표적기를 향해 SM-2 함대공 유도탄 미사일을 발사하고 있는 모습. /뉴스

이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분석했다.

2014년 기초연금 도입으로 공적연금의 추정 소득대체율이 54.6%(2007년 20세~50세 국민연금 가입자 기준)를 기록해 지난 2007년 연금개혁 당시 목표 한 50%를 상회하고 있어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인하할 여력이 있다는 것이다.

강성호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보고서에서 "향후 세대의 경우 국민연금 뿐만 아니라 기초연금 재정문제까지 염려해야 할 상황에 처할 수 있다"며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긴밀히 연계하는 노후소득보장 정책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안승진 기자 asj1231@metroseoul.co.kr

장관 절반 바뀌나 내년 총선 앞두고 尹, 대폭 '물갈이'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실 2기 체제' 출범과 함께 내년 총선을 앞두고 대규모 개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최근의 대통령실 조직개편과 인석쇄신에 이은 인사로, 중앙부처 19개 중 최대 10명 인파의 장관이 교체될 전망이다.

특히,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년여 동안 여소아대 한계를 절감한 윤 대통령으로서 정권의 성공을 위해 내년 총선에서 원내 1당을 차지할 수 있는 의석 확보가 절실한 상황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국무회의 비공개회의에서 "다음 주부터 떠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다"며 개각을 공식화한 바 있다.

이에 내년 총선 출마가 유력한 장관들이 이번 개각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는 오는 12일을 전후해 주요 인사들이 출마할 지역도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주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5명을 전원 교체한 데 이어 이르면 오는 4일부터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국가보훈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장관 인사를 순차적으로 단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후임에는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출마를 공식화한 원희룡 국토부 장관 후임에는 심교언 국토연구원장과 박상우 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김경식 전 국토부 1차관 등이 언급된다.

이영 중기부 장관 후임에는 유병준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가, 조승환 해수부 장관 후임에는 선장 출신 해양법 전문가인 김인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농림부 장관에 송미령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물망에 올랐다.

이종호 과기부 장관 후임에는 이용훈 울산과학기술원 총장, 유지상 전 광운대 총장 등이 거론된다. 유지상 전 총장은 신설 예정인 대통령실 과학기술 수석 후보에도 거론되고 있다.

(6면에 계속)

/박정익 기자 pathfinder@

거부된 '노란봉투법'... 노·사·정 갈등 일촉즉발

尹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에
노동계, 투쟁 예고 등 강경대응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이 결국 국회에 돌아왔다. 경제계는 한숨 돌렸다는 입장이지만, 노동계는 크게 반발하며 강경 대응을 예고하고 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일 노란봉투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노란봉투

법 거부권 행사 건의를 의결했다.

한 총리는 노란봉투법이 파업 대상을 무리하게 확대하고 갈등과 혼란을 야기하며 경제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경제계 주장을 그대로 수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사실상 폐기 수순

경제계는 즉시 긍정적인 입장을 발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노란봉투법을 노사분규와 불법행위를 조장하는 악법이라 규정하고,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다행이라고 밝혔다. 국회가 입법 폭주를 중단해야 한다고도 당부하기도

했다. 대한상공회의소 강석구 조사본부장도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합리적인 결정으로 평가하며 적극 환영한다는 뜻을 표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대통령 거부권을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조심스럽게 보면서, 국회에서 다시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데에는 뜻을 같이했다.

전문가들은 노란봉투법이 부결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따라 노란봉투법은 국회에서 과반수 이상 참석에 이중 3분의 2 찬성표를 받아야 한다. 국회 298석 중 여당인

국민의힘이 37%에 달하는 111석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 다시 통과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게 중론이다.

◆노동계 강경 대응

노동계는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함과 동시에 강경 대응에 나섰다.

민주노총은 정부서울청사와 전국 각지에 있는 국민의힘 사무실 앞에서 대통령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성명을 통해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반헌법적이고 시대착오적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투쟁을 예고하기도 했다. (3면에 계속)

/김재용 기자 juk@

바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김기현 "야당 습관성 묻지마 탄핵·막가파식 특검... 국회 마비" /사진 뉴스스
▲ 여당 "송영길 비례정당 '마지막 발악' 추악... 수사 협조하라"

▲ 민주 "국힘, 예산안·민생법안 하루빨리 통과시킬 수 있도록 협조해야"
▲ 추미애 "김건희 특검 대상 확대해야...여, 국회 책무 저버린 공범"



▲ 한 총리 "국회, 국민 절박한 목소리 부응 예산·민생법안 처리해달라" /사진 뉴스스
▲ 민주 "이정섭 후임 안병수, 수사 무마·기밀유출 의혹"

최단 기간

더현대 서울, 연매출 1조 돌파... '리테일 테라피' 공간 주효

(쇼핑을 통한 힐링)

대한민국 대표 랜드마크 자리매김
오픈 33개월만에 1조 점포 등극
“루이비통 등 글로벌 브랜드 확대”

현대백화점 더현대 서울이 오픈 2년 9개월 만에 연매출 1조원을 돌파했다. 국내 백화점 중 최단기간에 해당하는 기록이다.

현대백화점은 더현대 서울의 올해 누적 매출이 1조41억원을 달성하면서 지난 2021년 2월 26일 오픈 후 33개월 만에 ‘연매출 1조원 점포’로 등극했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종전 기록을 2년 2개월 앞당긴 것이다. 서울을 대표하는 트렌디 라이프스타일 공간을 표방한 더현대 서울이 이번 최단기간 1조원 돌파로 한국을 넘어 글로벌 눈높이에 맞는 쇼핑 메카로 자리매김했다는 평가다.

정지영 현대백화점 사장은 “더현대 서울은 단순 쇼핑 공간에 머물던 백화점에 대한 인식을 깨고 ‘오프라인의 재발견’, ‘공간 경험의 가치 극대화’ 등 리테일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며 대한민국 대표 랜드마크로 자리잡았다”며 “글로벌 수준의 MD 역량과 더현대 서울에서만 만날 수 있는 K패션 브랜드 등 참신한 콘텐츠 발굴 노력, 이로 인한 객단가 상승 등이 최단기간 1조원 돌파



더현대 서울 사운즈포레스트 전경

/더현대

기록에 주효했던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외국인 MZ로 북적이는 더현대 서울
더현대 서울을 방문한 외국인 매출은 2022년 전년 대비 731.1% 증가한 데 이어, 올해 1~11월에는 891.7% 상승했다. 현대백화점 전체 외국인 매출 평균 신장률(305.2%)의 3배에 육박한다. 외국인들 사이에서 더현대 서울이 꼭 방문해야 하는 서울의 시그니처 관광 코스로 자리매김하면서다. 실제 더현대 서울 외국인 구매고객 중 20~30대 비중이 72.8%에 달했다.

외국인 집객에는 자연친화적인 인테리어와 넓은 휴게공간을 등 백화점의

틀을 깨는 과격적인 공간 구성에 외국인의 관심이 높은 K-컬처를 집대성한 전략이 주효했다. 올해에만 더현대 서울에선 BTS(3월), 르세라핌(5월), 아이브(6월), ITZY(8월), 블랙핑크(9월) 등 최정상 아이돌 그룹 관련 팝업스토어가 꾸준히 열렸다.

◆‘패션 명가’ 독보적 MD 경쟁력으로 객단가 상승 효과 뚜렷

더현대 서울은 물건만 사서 나가는 목적형 소비 공간으로만 인식되면 안된다는 판단에 전경 설계부터 재구성했다. 이에 전체 영업 면적(8만9100㎡)의 절반을 실내 조경이나 고객 휴식 공간으로 꾸미고 자연 채광이 들어오는 천

정 설계 등 기존에 없던 ‘리테일 테라피(쇼핑을 통한 힐링)’ 공간을 구현했다. 이에 휴식과 쇼핑까지 함께 즐기는 고객들이 몰리면서 오픈 초기 식품 매출이 두드러졌다.

실제 오픈 첫해 19.1%에 달했던 식품 비중은 2022년 16.5%, 올해 13.2%로 서서히 감소한 반면, 영패션은 2021년 6.2% → 2022년 10.3% → 올해 13.9%로 식품 비중을 앞질렀다. 더현대 서울의 영패션 매출 비중은 더현대 서울을 제외한 현대백화점 전 점포 평균(8.2%)과 비교해도 압도적으로 높다.

이는 객단가 상승으로 이어졌다. 2021년 8만7854원이었던 더현대 서울

객단가는 지난해 9만3400원, 올해 10만 1904원으로 급증했다. 전년 대비 올해 객단가 신장률은 현대백화점 전점 평균(+1.1%)을 훌쩍 상회하는 9.1%에 달한다.

연평균 20%씩 성장해 온 해외명품 매출도 올해 전체 매출 중 25.6%를 차지하며 객단가 상승세를 뒷받침하고 있다. 더현대 서울 객단가는 식품을 제외하면 현대백화점 서울 점포 중 압구정본점, 무역센터점에 이어 3번째로 높다.

◆‘K패션 인큐베이터’ 자리매김

더현대 서울은 K패션 생태계 확장의 새로운 표준을 제시했다는 평가도 받는다. 오픈 당시 ‘쿠어’, ‘디스이즈네버댓’ 등 온라인 판매만 전개하던 브랜드를 업계 최초로 입점시킨 것을 비롯해 ‘미스치프’, ‘세터’, ‘드라운드’ 등 신진 브랜드를 연이어 선보이며 현재까지 200여 개의 한국 토종 브랜드가 더현대 서울을 통해 오프라인으로 진출했다.

K패션 시장 성장을 위해 현대백화점은 유망 브랜드를 발굴하고 있으며 브랜드별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올해 패션 매출은 개점 첫해보다 113.2% 급증하며 오픈 이래 가장 높은 매출 비중(23.1%)을 기록했다.

/최빛나 기자 vitna@metroseoul.co.kr



한덕수 국무총리와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를 비롯한 고위당정협의회 참석자들이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 서울공관에서 회의를 하고 있다. /뉴스1

당정 “50인 미만 기업, 중대재해법 2년 유예”

용산 2기 체제 출범 이후 첫 당정
공공·민간정보시스템 일제점검 실시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3일 ‘정부 행정전산망 먹통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공공정보시스템과 함께 민간 금융·의료기관 등도 일제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50인 미만 기업 적용 유예와 관련해서 법안 통과와 더불어 범정부 ‘50인 미만 기업 지원대책’을 마련해 이달 중 발표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행정전산망 개선 ▲중대재해법 유예 ▲늘봄학교 추진 계획 점검 등 3가지 안건을 논의했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회의 후 국회 브리핑을 통해 고위당정 결과를 전했다.

우선 당정은 주민등록시스템, 모바일 신분증 등 연이은 전산망 장애로 인해 국민들의 불편이 커짐에 따라 정부 대응체계와 정보화 사업 전반에 대한

구조적 문제를 점검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우선 공공정보시스템(338개)과 민간 금융·의료기관 등 기반시설에 대해서도 이달까지 일제 점검을 실시하는 등 공공·민간 정보시스템 전반을 면밀히 살펴보기로 했다.

당정은 단기 개선책으로 노후장비 전수점검, 정보시스템 인프라 이중화 및, 등급제 개선, 예방·대응 컨트롤 타워 구축 등을 제시했고, 장기적으로 공공·민간의 다양한 클라우드 방식을 활용하고 공공부문의 디지털 관리 역량을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또 소프트웨어 단가 현실화, 분리발주 및 조달평가 제도 개선, 기술력 높은 기업의 공공정보화 사업참여를 활성화하는 등 정보화 사업 제도도 혁신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범정부 대책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해 내년 1월까지 종합대책을 수립해 발표할 방침이다.

당정은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중대

재해법 적용을 2년 더 유예하는 내용의 개정안 처리방안을 논의했다.

당정은 중대재해법 개정안이 조속히 법사위에 상정·논의되도록 적극 추진하는 한편, 재해 예방, 인력 양성·활용 지원, 기술·시설 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범정부 ‘50인 미만 기업 지원대책’을 마련해 이달 중 발표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예산도 적극 확충할 방침이다.

늘봄학교 추진 확대와 관련해서, 자녀 초등학교 입학 시기 여성 경력단절 현상을 해소하고 신입생의 학교 적응을 도울 수 있도록 초등학교 1학년 대상 프로그램(초1 에듀케어)을 희망하는 모든 학생이 참여하도록 했다.

한편 이날 회의는 새로 꾸려진 용산 2기 체제 출범 이후 첫 당정이었다. 김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새로 소임 맡은 분들에게 축하 인사드리고 제2기 팀이 더 큰 활약을 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축하를 전했다.

/서예진 기자 syj@

서울시, 세계최초 자율주행버스 정기 운행

합정~동대문 구간 9.8km 순환

서울시내에 세계 최초로 자율주행버스가 정기 운행한다.

서울시는 4일 오후 11시30분부터 부도심과 도심의 연결하는 간선기능의 심야자율주행버스가 정기운행을 시작한다고 3일 밝혔다.

심야 자율주행버스는 대학가와 대형 쇼핑몰 등이 밀집해 늦은 밤 이동이 많은 합정역~동대문역 중앙버스전용차로 구간 9.8km를 순환한다. 일반 시내버스와 같은 규격의 대형 전기 자율주행버스 2대가 투입된다.

운행 시간은 월~금요일 평일, 오후 11시30분부터 익일 오전 5시10분까지다. 합정역과 동대문역에서 밤 11시30분에 버스 1대가 각각 출발해 70분 간격으로 순환 운행한다.

합정역~홍대입구역~신촌역~아현역~서대문역~세종로(교)~종로1가~종로5가~동대문역(흥인지문) 구간에서 일반 시내버스와 동일하게 도로 중앙에 위치한 정류소 40곳(편도 20개소)에서 자유롭게 승하차하면 된다.

심야 자율주행버스가 운행을 시작하면 중앙정류소에 설치된 버스정보안내단말기(BIT)에 실시간 도착 시간이 표출된다. 네이버나 다음포털 등에서 ‘심야 A21’ 노선을 검색하면 실시간 위치와 도착 시간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갑작스런 폭설 등으로 인해 안전상 운행이 중지되는 경우가 있어 사전에 운행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심야자율주행버스는 별도의 앱 설치 없이 일반 시내버스처럼 교통카드 태그



심야 자율주행버스.

/서울시

후 탑승하면 된다. 당분간은 무료로 운영된다. 무료이긴 하지만 버스를 타고 내릴 때 반드시 교통카드를 찍어야 한다. 요금은 0원으로 처리되며, 환승 할인도 된다.

시 관계자는 “승하차시 교통카드를 태그하지 않으면 다른 버스나 지하철을 이용할 경우 환승 할인이 적용되지 않아 요금 부과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며 “반드시 일반 시내버스처럼 타고 내릴 때 교통카드를 태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는 안정화 과정을 거쳐 내년 상반기 유료로 전환할 계획이다. 요금은 ‘서울시 자율차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기존 심야버스 기본요금의 2500원보다는 낮게 책정할 것이라고 시는 덧붙였다.

시는 내년 청량리역까지 운행 구간(총 13.2km)을 연장하기로 했다. 운영 결과를 토대로 단거리 순환이 아닌 시외곽~도심~시외곽을 잇는 장거리 운행 자율주행버스를 정규 노선화해 시민들이 시간제한 없이 24시간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게 한다는 구상이다.

/김현정 기자 hjk1@

인구소멸시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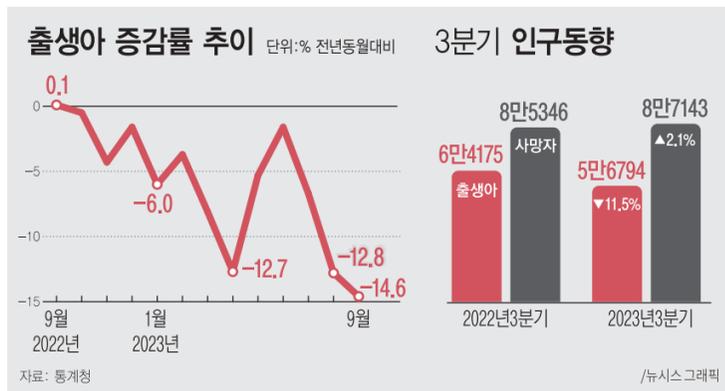
수백조 예산 투입에도 0.7명 ‘초저출산’... 구조정책 불가피

3분기 기준 합계출산율 0.7명 경쟁압력, 주거불안 등 영향 “차별없는 제도적 지원 필요”

무려 21년. 우리나라가 초저출산 국가로 지목된 기간이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380조원가량의 예산이 투입됐지만 외려 출산율은 떨어지고 있다. 지난 3분기(7~9월) 합계출산율은 0.7명으로 10년전 1.19명과 비교해 0.49명 줄었다. 합계출산율은 가임여성(15~49세) 1명이 평생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 수를 말한다.

한국은행은 출산율이 이처럼 낮아질 경우 2050년에는 성장률이 0% 이하가 될 확률이 50.4%에 달한다고 내다봤다. 2060년 이후에는 80.1% 수준이다. 성장률이 1% 낮아지면 일자리가 7만개가량 줄어 들고 가계소득은 0.4~0.5% 감소한다. 고령층 비중 또한 높아지고 있어 경제전반의 불평등도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 경쟁압력에 고용·주거·양육 불안 한은은 3일 경제전망보고서를 통해 초저출산율이 발생하는 근본적 원인으로 청년들의 ▲경쟁압력 ▲고용불안 ▲주거불안 ▲양육불안을 꼽았다. 우선 우리나라의 청년(15~29세) 고용률을 살펴보면 우리나라 15~29세 고용률은 지난해 기준 46.6%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54.6%)보



다 낮은 수준이다. 25~39세 고용률도 75.3%로 OECD 평균(87.4%)과 비교해 12.1%포인트(p) 낮다.

한은 관계자는 “졸업 후 첫 취업에 소요되는 기간은 10~11개월로 늘지 않았지만, 대학졸업에 걸리는 기간은 휴학기간이 늘면서 크게 증가했다”며 “취업이 늦어지면서 결혼 등 생애과정의 이행도 늦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일자리 질도 나빠지는 추세다. 15~29세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중은 2003년 31.8%에서 2022년 41.4%로 9.6%p 증가했다. 나라별로 보면 OECD의 34개국 중 네덜란드 다음으로 고용안정성이 좋지 않다.

일자리 양과 질이 낮아지면 청년들의 경쟁은 치열할 수밖에 없다. 전국 29~39세 청년 2000명을 조사한 결과 경쟁압력 체감도가 높을수록 희망 자녀수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쟁압력 체감도가 높은 그룹의 평균 희망

자녀수는 0.73명으로 경쟁압력 체감도가 낮은 그룹의 희망자녀수(0.87명)보다 0.14명 낮았다. 일자리 등의 경쟁압력이 출산율을 낮추고 있다는 분석이다.

주거불안도 출산율을 낮췄다. 조사 결과 주택가격이 높은 특별·광역시에 거주하는 응답자일수록, 주택마련에 오랜 기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는 응답자에게서 결혼의향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육부담도 한 몫 했다. 자녀에 대한 금전적 지원 등 의무가 강해질수록 결혼의향이 낮고, 희망자녀수가 적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은 관계자는 “우리나라 청년들의 경우 다른 나라에 비해 생활비와 재정 상황에 대한 우려가 큰 편”이라며 “결혼 의향이나 희망 자녀수를 비교해봤을 때 고용 및 주거안정이 결혼·출산 결정에 중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아이 중심 지원체계 필요

한은은 초저출산 국가를 벗어나기 위해선 구조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선 일자리의 90%를 창출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쟁력과 임금 지급여력을 제고해야 한다.

한은 관계자는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거래, 1차와 2차 노동시장의 교섭력 격차 등으로 소득차가 발생해 청년들이 대기업에만 몰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중소기업과 2차 노동시장의 처우수준을 높이는 구조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수도권 집중현상을 완화하고, 일관된 주택공급 정책도 마련해야 한다.

한은 관계자는 “수도권 집중은 인구 밀도를 높여 경쟁압력과 주택가격 상승을 유발하기 때문에 거점도시 육성 등을 통해 지방의 인력과 자원이 유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일관된 주택공급 정책과 과도한 주택가격 상승기대 및 위험자산 투자로 이어지지 않도록 대출수위를 조절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청년층(15~39세) 고용률(58%)이 OECD 34개국 평균수준(66.6%)으로 높아질 경우 출산율은 0.12명 늘었다. 주택가격을 하향 안정화할 경우 출산율은 0.002명 증가했다.

또 가족지원 예산을 확대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족관련 지원예산은 2020년

기준 1.55%다. OECD 평균(2.2%)과 비교해 0.65%p 낮은 수준이다. 특히 육아휴직 관련 지출은 GDP 대비 0.07%로 OECD 평균(0.35%)의 5분의 1 수준이다.

한은 관계자는 “일 가정의 양립을 위한 다양한 제도가 존재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며 “육아휴직 사용률은 출생아 100명당 여성 48명, 남성 14.1명으로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 남성 및 중소기업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률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GDP 대비 가족관련 지원 예산을 OECD 평균수준으로 높일 경우 출산율은 0.06명, 육아휴직 실이용기간을 OECD 평균수준을 높일 경우 출산율은 0.10명 늘어났다.

한은은 부모중심의 지원체계에서 아이중심의 지원체계로 정책지원의 시기가 변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청년 중 결혼을 하지 않아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비중은 2012년 29.8%에서 2022년 39.6%로 증가하고 있다.

한은 관계자는 “많은 유럽국가에서도 혼인 외 출산비중이 상승하면서 출산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가정의 형태(비혼출산 등)에 관계없이 아이가 태어나면 차별없이 제도적 지원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metroseoul.co.kr

국민 평균연령 44.7세... 올해만 10만명 이상 인구 감소

11월말 5133만명... 전월비 1.7만명 ↓ 출생아 수, 사망자 절반 수준 머물러

지난달 전국 인구가 14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 인구는 올해 들어서만 10만 명 넘게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3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11월 말 기준 인구는 5133만 명으로, 전달에 비해 1만7150명 줄었다. 이는 지난해 9월 이후 최대 감소폭이다.

월별 감소폭은 올해 1월부터 9월까

지 5000명~9000명 선을 유지하다 10월(-1만5775명)과 11월에 크게 확대됐다. 지난해 말(5143만 명) 대비 전국 거주민 수가 10만1900명 줄었다.

지난달 국내 17개 주요시·도 가운데 서울(-9324명)이 압도적으로 큰 감소폭으로 보였다. 부산(-2717명)과 경북(-1823명)이 그 뒤를 이었다. 또 경남(-1620명)과 전북(-1112명) 등이 1000명 이상의 감소를 나타냈다.

11월 인구는 경기(+295명)와 인천

(+3216명), 세종(+177명), 충남(+1028명)을 제외한 13개 시·도에서 10월에 비해 뒷걸음질했다.

또 고령화 흐름 속에 국민 평균연령의 45세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 지난달 말 기준 44.7세였다. 평균연령은 2018년 11월에 42.0세, 2013년 11월에 39.5세, 2008년 11월에 37.0세였다. 여자(올해 11월 기준 45.9세)의 경우 이미 45세를 넘어섰다. 남자는 43.6세였다.

행안부에 따르면 0~9세 인구는 334

만 명으로, 50대(866만 명)의 2/5 수준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들은 70대(395만 명)보다도 적었다.

10대 인구도 465만 명으로 20대(621만 명)와 30대(657만 명), 40대(794만 명)에 비해 한참 적었다. 또 20대·30대 역시 60대(762만 명)보다 각각 적었다.

지난달 출생아 수는 1만8405명으로 사망자 수(3만561명)를 크게 밑돌았다. 출생아 수는 올해 9월(1만7926명) 역대 최저를 기록한 뒤 10월(2만346

명)에 반등했으나 11월에 다시 2만 선 밑으로 떨어졌다.

출생아 수는 5년 전(2018년 11월)에 2만6105명, 10년 전(2013년 11월)에 3만3348명, 15년 전(2008년 11월)에 3만6111명이었다.

또 혼인율 감소, 독거노인 증가 등으로 지난달 국내 1인가구(세대) 수가 992만 개에 달했다. 전체 가구(2390만 개)의 41.5%가 1인가구였다. 이어 2인가구(585만 개), 3인가구(403만 개), 4인가구(315만 개), 5인 가구(74만5000개) 순으로 나타났다. 서울의 경우 전체 가구 446만 개 중 198만 개가 1인가구였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한국노총, 경사노위 불참... 일각선 총파업 가능성 거론

» 1면 ‘거부된 노란봉투법...’서 계속

한국노총도 여당과 이정식 노동부장관에 책임을 물으며 노동개혁과 탄압에 맞서겠다는 내용으로 입장문을 발표했다. 특히 한국노총은 따로 집회를 여는 대신,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부대표급 회의에 불참하는 방식으로 항의에 나섰다.

경사노위는 대통령 직속으로 노사정 대표들이 모이는 국내 유일한 소통

창구다. 최저임금 인상안 결정 등 중요한 사회적 사안을 결정하는데 핵심 역할을 한다. 이미 민주노총은 노사정위원회이던 시절부터 불참해왔고, 노동계에서는 한국노총만 꾸준히 참여하고 있다.

일단 경사노위는 한국노총이 일시적으로 불참한 것일뿐이라는 입장이다. 한국노총이 정부 투쟁과 사회적 대화를 별개로 진행하겠다는 방침도 전했다. 일주일 뒤에는 한국노총 숙원 사업

중 하나인 공무원·교원노조 전임자 근로시간 면제제도(타임오프제)가 시행되는 만큼 한국노총이 파행을 할 수도 없는 입장이다.

다만 한국노총이 불참한 부대표 회의는 이달 중순 열리는 대표자 회의를 위해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하는 자리, 자칫 시기가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는 여전하다.

‘총파업’ 가능성도 거론된다. 한국노총은 대통령 거부권 행사 가능성에 대



지난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개정 노조법 2, 3조, 방송3법 즉각 공포 대통령 거부권 행사 반대 기자회견에서 민주노총 조합원 및 노조법 2, 3조 개정운동본부 관계자들이 피켓을 들고 있다. /뉴스1

해 강경한 대응을 예고해왔다고 확인했고, 민주노총은 기자회견 등을 통해 ‘총

파업’과 윤 대통령 퇴진 집회로 이어가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김재우 기자 juk@

통신사, AI 중심 신사업 주력... 영입·승진 등 전문성 '힘 심기'

통신3사, 올 연말 인사 키워드 'AI'
KT 임원 20% 축소, 외부 인사 영입
SK 'AI 컴퍼니' 뒷받침할 조직개편
LGU+ 승진 등 신사업 실무진 유지

이번주 SK텔레콤을 끝으로 통신 3사의 조직개편이 마무리된다. 올 연말 이동통신 업계의 인사 키워드는 비통신 사업에 중점을 둔 대대적인 임원진 교체이다. 주력 사업인 통신업을 탈피하고 인공지능(AI) 중심의 신사업 성장에 속도를 내기 위해 담당 실무자를 전방에 배치하는 모습이다. 특히 KT는 상무보 이상 임원 규모를 20% 축소하고 외부 인사를 영입해 전문성을 강화했다. SK텔레콤 또한 그동안 'AI 컴퍼니'를 강조해온 만큼 AI 중심의 조직개편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KT, 임원 20% 감축... AI 실무자 대거 포진

지난 30일 KT 김영섭 대표가 취임 3개월 만에 첫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이번 정기 인사는 지난해 공백으로 인사가 이뤄져 2021년 11월 이후 2년 만이다. 김 대표는 부문장급 임원을 대거 교체하는 것은 물론 구현모 전 KT 대표의 핵심 사업 전략으로 평가받아 온 트랜스포메이션 부분이 해체했다. 또 스텝 조직을 최고경영자(CEO) 직속으로 배치했다.

실제 KT는 상무보 이상 임원을 20% 줄였다. 그간 KT 그룹사의 핵심 보직이



지난 15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방통신위원회에서 방통위의 이용자보호 및 공정경쟁 정책을 공유하고 주요 현안에 대한 통신업계 의견 청취를 위해 이동통신3사 대표들과 간담회를 앞두고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SK 유영상 사장, 이동관 전 방통통신위원장, KT 김영섭 사장, LGU+ 황현식 사장. /뉴스시

KT 임원들의 퇴임 수순으로 활용됐던 기존 관행을 과감히 탈피하고 전문성과 역량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인사를 배치하겠다는 포부다. 상무 이상의 임원은 98명에서 80명으로 상무보는 기존 312명에서 264명으로 대폭 축소했다.

또 인공지능(AI) 등 핵심 기술 역량은 강화해 기업 간 거래(B2B) 시장의 성장은 가속화할 계획이다. 연구단계에서 서비스 구현까지 기술개발 전 과정의 혁신을 위해 기존의 IT부문과 융합기술원(R&D)을 통합해 '기술혁신부문'을 신설한다.

아울러 전문성 있는 외부 인사들도 대거 수혈했다. 신설한 기술혁신부문장(CTO)으로 야후, 마이크로소프트 등을

거친 오승필 부사장을 영입했고 기술혁신부문 산하 KT컨설팅그룹장에는 디지털 클라우드 기술 컨설팅 전문가인 정우진 전무를 영입했다.

KT 계열사 임원진의 교체 가능성도 유력하다. 임기 만료를 앞둔 대표적 계열사는 KT스카이라이프, KT알파, 지니뮤직, 나스미디어, KT is, KT cs, 나스미디어, 플레이디, 이니텍 등이 있다. 케이뱅크, 비씨카드는 올해 연말로 임기가 끝난다. KT스카이라이프와 KT알파 대표는 올해 3월 정기 주주총회에서 대표가 교체됐지만 1년 임기로 선임돼 교체 가능성이 있다.

◆SKT, 비통신 중심 인사개편 유력
다음주에 조직개편을 앞둔 SK텔레

콤도 비통신 사업에 중점을 둔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주력 사업인 통신업의 성장이 정체되면서 연일 '글로벌 AI 컴퍼니'로의 전환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SK텔레콤은 지난 2021년 유영상 사장 취임과 함께 '유무선 통신을 기반으로 AI 서비스 기업으로 진화한다'는 내용의 'SKT 2.0' 비전을 선언했다. 지난 9월에는 모바일·IPTV(인터넷TV) 등 핵심 사업에 AI를 접목하는 'AI 피라미드' 전략을 발표하며 2028년 25조원의 매출을 달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SKT는 유영상 대표의 연임 가능성은 높을 것으로 보인다. 2021년 11월 취임한 유 대표는 오는 3월 24일 공식 임기가 만료된다. SKT의 올해 영업이익이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AI 사업을 무난히 이끌었다는 평에서다. 실제 SKT의 올해 3분기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7.0% 증가한 4980억원을 기록한 반면, KT와 LG유플러스는 지난해 대비 각각 28.9%, 10.8% 감소했다.

◆LGU+, 임원진 교체 적었지만... 신사업 실무진 유지

LG유플러스는 황현식 대표가 연임에 성공하면서 그동안 강조해온 AI 중심의 신사업 성장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4일 LG유플러스는 황현식 대표의 연임과 함께 전무 승진 1명, 상무 신규 선임 7명 등을 결정하면 타이 통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변화를 택했다.

이번 연임으로 황 대표는 LG유플러스를 3년 더 이끌게 됐다. 그가 LG유플러스 첫 내부 출신 CEO로 취임 이후 연간 영업이익의 1조원, 이동통신(MNO) 순위 2위 달성 등 사업 지표 개선 등의 성적을 달성한 만큼 변화보다 '안정'에 초점을 둔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황 대표의 연임에 이어 이번 인사는 신사업 강화에 대한 회사의 의지가 담겨있다. AI·데이터사이언스그룹장을 맡고 있던 전병기 상무를 전무로 승격시킨 점이 비통신 사업에 주력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황 대표는 '유플러스 3.0'을 선언하며 2027년까지 비통신 매출 비중을 40%로 올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그동안 LG유플러스는 스포츠 커뮤니티 플랫폼 '스포키', 화물 중개 플랫폼 '화물잇고' 등도 내놨다. 특히 스포키는 누적 이용자 1500만명을 돌파하며 비통신 사업이 지속 성장하고 있다.

LG유플러스는 "이번 임원인사는 고객 경험 혁신을 통해 기존 통신 사업의 기반을 견고히 함과 동시에 미래 성장 동력으로서 신사업의 추진력을 강화하는데 집중했다"며 "특히 AI·데이터 기반의 기술 경쟁력을 확보해 고객 관점에서 차별화된 가치를 제공하고 미래 신사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인재를 적극 중용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韓 '하이엔드' 배터리로 글로벌 경쟁력 확보

中, 나트륨이온배터리 사업 진출에
韓, 포트폴리오 확장 등 전략 내세워
세계 고성능 전기차 시장 공략 본격화

중국 배터리 업계가 '나트륨이온배터리' 사업 진출로 중저가 시장을 공략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 배터리업계는 '하이엔드' 배터리 개발로 경쟁력 확보에 집중하고 있다.

3일 유진투자증권에 따르면 ESS 시장 등 배터리의 대형화가 진행되며 나트륨이온배터리가 차세대 기술로 다시 주목받고 있다.

나트륨이온배터리는 저렴한 원재료와 안전성으로 업계의 관심을 끌고 있다. 삼원계 리튬이온배터리의 재료인 리튬 대비 나트륨은 매장량이 풍부하고 원가도 낮아 약 20~30% 저렴하다. 더불어 화재 가능성이 높은 리튬이온배터리에 비해 나트륨이온배터리는 안전성이 높은 장점이 있다.

이에 중국 기업들은 나트륨이온배터리 시장 선점을 위한 경쟁을 본격화하고 있다. CATL과 BYD(비야디) 등 중국 전기차용 배터리 제조사들은 나트륨이온배터리 시장에 뛰어들고 있다. 특히 CATL은 지난 2021년 1세대 나트륨이온배터리를 공개하며 상용화를 선언한 바 있다. BYD도 2024년 자체 브랜드 '돌핀' 등에 배터리 탑재를 목표로 중국에 나트륨 배터리 공장 건설 계획을 확정했다.



LG에너지솔루션 오창 전경. /LG에너지솔루션

반면 국내 배터리 3사는 나트륨 배터리 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있다. 국내에서는 정부 차원의 연구개발만 이뤄지고 있는 중이다.

배터리업계 관계자는 "국내 배터리 업체는 하이엔드부터 시작해 포트폴리오를 확장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내 배터리 업계는 하이엔드 배터리 개발에 집중해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주력 생산 제품은 삼원계리튬이온 배터리에 에너지밀도가 높아 주행거리가 길고 고속 충전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고성능 전기차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SK온은 스웨덴 전기차 브랜드 폴스타와 배터리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삼성SDI는 P5 배터리와 같은 고부가가

치 고성능 제품에 힘을 쏟는 중이다. P5 배터리는 현재 BMW의 i4, i7, iX에 탑재되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은 테슬라에 21700 원통형 배터리를 공급 중이다.

아울러 국내 배터리 업계는 나트륨이온배터리의 경우 밀도가 낮고 부피가 커 리튬 배터리를 대체할 만큼 효율적이지 않다고 분석한다. 일반적으로 나트륨이온배터리는 부피당 에너지 밀도가 370Wh/L인 반면 삼원계 리튬이온배터리는 650Wh/L로 큰 격차를 보인다. 이로 인해 주행거리가 짧고 배터리 수명이 리튬이온배터리보다 짧다. 나트륨이온배터리는 LFP 배터리에 비해서도 성능의 80~90%에 그칠 정도다.

/차현정 기자 hyeon@

韓 '프로리아' 바이오시밀러 8兆 시장 도전

2022년 기준 프로리아 8조 매출 기록
셀트리온 美에 CT-P41 품목허가 신청
삼성바이오에피스 SB16 임상시험 완료

'프로리아'는 다국적 제약사 암젠의 골다공증 치료제다. 동일한 주성분이 암환자의 골 전이 합병증을 치료하는 '엑스지바'라는 제품명으로도 허가된 약물이다.

시장 조사기관 아이큐비에 따르면 지난 2022년 기준 프로리아는 58억300만 달러(약 7조5400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오는 2025년 2월과 11월에 미국과 유럽에서 각각 특허가 만료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국내 제약사들은 프로리아 바이오시밀러 시장에 도전하고 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셀트리온은 지난 11월 30일(현지시간)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골다공증 치료제 '프로리아-엑스지바(성분명: 데노수맵)' 바이오시밀러 'CT-P41'의 품목허가 신청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셀트리온은 오리지널 제품인 '프로리아'와 '엑스지바'가 미국에서 보유한 전체 적응증에 대해 품목허가를 신청했다. 골다공증, 골소실, 다발성 골수종 및 고형암 골 전이로 인한 골격계 합병증 예방, 골격대체포종 등이 해당한다.

셀트리온은 앞서 지난 10월 폴란드, 에스토니아 등 총 4개국에서 골



암젠의 골다공증 치료제 '프로리아(성분명: 데노수맵)' /암젠코리아

다공증이 있는 폐경기 여성 환자 477명을 대상으로 CT-P41의 글로벌 임상 3상을 진행해 오리지널 의약품 대비 동등성 및 약력학적 유사성을 확인했다.

셀트리온에 따르면 향후 미국에서 'CT-P41'의 허가가 완료되면 상호교환성 바이오시밀러의 지위도 확보돼 오리지널 제품에 대한 대체 처방이 가능해진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프로리아의 바이오시밀러인 'SB16' 임상시험을 완료하고 허가 절차를 추진 중이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지난 10월 13일부터 16일까지 캐나다 밴쿠버에서 열린 '미국골대사학회 연례 학술대회'에서 'SB16'의 임상 1상 및 3상 결과를 최초로 공개하기도 했다.

휴온스글로벌의 자회사 휴온스랩도 프로리아의 바이오시밀러 'HLB3-013'을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2월 오리지널 제품과 비교해 비임상 동물 효력시험에서 동등한 효력이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청하 기자 mlee236@



세상을 바꾸는 금융

"도서관이 모든 사람들의 놀이터가 됐으면 좋겠어요"

충남 서산 토성산 맹꽁이 작은도서관 안세영 관장 (56세)

늘 이웃을 위하셨던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뜻을 이어 마을 주민들이 언제든지 와서 편히 쉬고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숲속 도서관을 짓고 싶었어요

비탈길 산자락에 직접 땅을 일구며 주변 분들의 도움을 받아 도서관을 지어 갔죠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 책장과 의자 하나까지 이곳엔 제 손이 닿지 않은 곳이 없어요

거의 20여 년 동안 연못과 놀이터, 작은 동물원까지 더해가며 오는 길마저 즐거운 도서관을 만들어 왔어요

책과 함께 웃고 행복해하는 아이들과 주민들을 위해 앞으로 더 좋은 책과 공간으로 채워가는 것이 제 희망입니다

더 나은 세상을 위한 작은 희망들을 KB가 응원합니다

To BOOK continued

Korea Better
KB금융그룹

세상을 바꾸는
희망부자
그 여섯번째 이야기



KB 작은도서관

KB금융그룹은 모든 아이들이 독서와 함께 꿈을 키울 수 있도록 2008년부터 2022년까지 전국 108곳의 지역에 KB작은도서관을 조성하였고 2023년까지 전국 8곳에 새로운 도서관을 조성해드립니다

與野, 예산안 법정시한 또 어겨... 대치 속 '네 탓' 공방만

예결위, 아직 증액심사 실시 안 해
野, 김건희 추가조작·쌍특검 등
국정조사 추진에 협상 어려워



윤재욱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의장 사퇴촉구 및 의회폭거 규탄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왼쪽 사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홍익표 원내대표 등 참석 의원들이 지난 11월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예결위의장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손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는 모습. /뉴스1

국회의 2024년도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12월2일)이 지났지만, 여야가 아직도 이견을 좁히지 못하며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이다.

국회법 제85조의3에 따르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예산안 심사를 11월30일까지 마쳐야 한다. 하지만 30일까지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 정부 원안이 12월1일에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보는데, 여야가 이를 상정하지 않은 상황이다.

여야는 예결위 활동기한이 11월30일까지 예결위원장과 여야 간사가 함께 '소소위'를 구성해 협상을 이어갔지만 합의를 이뤄내지 못했다.

윤석열 정부가 청년, 과학 R&D(연구개발), 지역화폐, 새만금 예산 등을 대폭 삭감한 것에 반발하면서 여야가 입장차가 좁혀지고 있지 않는 상황이

다. 예산안 심사는 감액 심사 후에 증액 심사가 이뤄진다. 예결위는 감액 심사만 마쳤을 뿐, 증액 심사는 아직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자진사퇴하면서 탄핵 정국은 일단락됐지만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추가조작 및 대장동 50억클럽에 대한 쌍특검과,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를 적극 추진하고 있어 여야 협상 자

체가 쉽지 않은 국면이다. 민주당은 오늘 8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쌍특검 법안 처리를 노리고 있어 예산안 처리도 늦어질 가능성이 높다.

여야는 이에 대한 책임을 상대에게 돌리며 결단을 요구하고 있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3일 오후 논평을 내고 "우리 헌법은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인 12월2일까지 예산안 의결을 마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하지만 지난

11월30일과 12월1일 예산안 처리를 위해 잡힌 본회의마져 본질을 흐린 채 탄핵으로 얼룩지며, 결국 법정 처리시한을 넘기게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방탄이 최우선이다 보니 예산안 역시 '이재명표 예산'에만 집중된다"며 "민주당은 상임위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정부표 예산은 전액 삭감 등 묻지마 감액하더니, 이재명표 하명 예산 5조9360억원만 단독으로 증액 처리

했다"고 덧붙였다. 전 원내대변인은 "21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일주일 남은 지금, 국민이 기다리는 것은 탄핵도, 특검도, 국정조사도 아닌 바로 '예산 처리'"라고 강조했다.

이에 맞서 임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서면브리핑을 내고 "국민의힘은 지금 예산안과 민생법안을 처리할 의지가 있기는 한가"라며 "예산안과 민생법안 처리에 앞장서야 할 여당이 예산안과 법안 심사를 막고 있으니 기가 막힌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 예결위에서 막판 예산안 심사가 한창"이라며 "국민의힘이 국민과 민생을 입에 담으려면 즉시 예산안 처리에 협조하고 법사위를 즉시 열어 계류된 법안들의 처리에 협조하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국민과 민생을 위해 밤을 새울 각오가 돼 있다. 국민의힘도 국민이 선출한 대표임을 자각하고 밤을 새울 각오로 예산안과 민생법안 처리에 동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與 지도부, '희생' 혁신안 수용 안 할 듯... 공천 준비 가속화 전망

혁신위, 4일 최고위서 보고
조기해산 수순 밟을 것으로 예상
공관위 출범·인재영입 등 준비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로 출근하고 있다. /뉴스1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원회'가 4일 지도부·중진·친윤계(친윤석열계)의 힘 지출이나 불출마(희생) 혁신안을 지도부에 보고할 예정이다. 앞서 혁신위는 지난달 30일 희생 권고안을 정식 혁신안으로 채택한 바 있다.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제시한 응답 기한은 4일이었다. 당 지도부가 혁신안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낮으므로, 곧 총선 공천 준비를 가속화시킬 전망이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지도부는 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도부·중진·친윤계 희생 혁신안을 보고한다. 앞서 인요한 위원장은 이에 대한 답을 같은날 내놓으라고 요구했다. 자신을 공천관리위원장으로 추천해줄 것을 함께 제안했지만, 이는 김기현 대표가 바로 거절했다.

인 위원장의 요구는 희생 혁신안을 받아들이거나 공천 권한을 달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하지만 당 지도부는 둘 다 받아들이지 않을 모양새다. 공관위원장인 김 대표가 이미 거절했고, 희생 혁신안은 개인 거취 문제라 당 지도부가 의결해 강요할 성질의 사안이 아닌 이유에서다. 4일 최고위에서도 진지하게

논의될 가능성은 낮다. 또 해당 혁신안은 지난달 초 '권고' 형식으로 제기된 바 있지만, 이에 응답한 당내 의원은 거의 없는 상황이다. 내년 총선까지 시간이 남은 데다 예산안 심사 정국이라 결단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당사자들은 거취 문제는 혁신위나 당 지도부의 의중과는 별개

로, 적당한 시기에 밝히는 것이 맞다고 판단한 셈이다.

결국 인 위원장의 요구는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는데, 이 경우 혁신위는 조기 해산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혁신위에 전권을 위임했던 김 대표와 지도부 역시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를 극복하고자 꾸려진 혁신위임에도, 지도부가 혁신을 스스로 포기했다는 지적을 받거나, 혁신위가 '시간끌기용'이었다는 평가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혁신위는 최후통첩 응답 기한으로 제시한 4일까지 지도부가 요구를 수용하는지 지켜보고, 그 이후 대응책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주 혁신위의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한다.

이에 지도부는 혁신위가 동력을 잃게 되는 것을 대비해 공관위 출범과 인재영입 등을 준비하고 있다. 비상대책위원회를 띄우지 않고, 당 지도부를 중심으로

총선을 준비해나가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그리고 혁신안에 대한 논의 역시 공관위에 넘길 수 있다.

앞서 총선기획단은 공관위 출범 시점에 대해 "마지막 회의가 오는 14일로 잡혀있기 때문에 12월 중순이나 늦어도 12월 말까지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공관위가 꾸러지면 당무감사 결과와 총선기획단 평가 지표를 바탕으로 공천 준비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인재영입위원회의 영입 인사 발표도 이번주부터 시작된다. 인재영입위는 이 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등 다양한 인사를 접촉해 '새 얼굴' 공개를 준비 중이다. 이 교수는 비례대표가 아닌 지역구 출마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자택이 있는 서울 서초와 재직 중인 학교가 있는 경기 수원 등이 출마 예상지로 거론된다. 인재영입위는 이번주에 1차로 5명 가량의 영입 인재를 발표할 방침이다. /서예진 기자 syj@

이상민, 민주당 탈당... "고쳐쓰기 불가능"

입장문서 이재명 대표 비판



돼 딱 잡아떼고 버티며 우기는 반상식적이고 과립치하기까지 한 행태가 상습적으로만 연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내로남불과 위선적, 후안무치, 약속 뒤집기, 방패정당, 집단 폭력적 언동, 혐오와 차별 배제, 무능과 무기력, 맹종 등 온갖 흠이 쌓이고 쌓여 도저히 고쳐쓰기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이제 이재명 사당, 개팔당으로 전락한 지금의 민주당에 대한 저의 희망과 꿈을 접지 않을 수 없다"며

"더이상의 기대와 노력은 무망하고 무용할 따름"이라고 탈당 배경을 밝혔다.

이어 "이제 저의 정치적 꿈과 비전을 펼치기 위해 그리고 상식의 정치를 복원하기 위해 그 터전이 될 수 없는 지금의 당과 유쾌하게 결별하고 삼삼하게 새로운 길을 모색하고자 한다"고 부연했다.

이 의원은 언론 인터뷰 등에서 다음 주 중에 자신의 거취를 결정하겠다고 공공연하게 말해 왔고 국민의힘 입당, 이준석 신당 창당 시 합류 등 여러 가능성을 시사해온 바 있다.

이번 탈당으로 이 의원과 함께 이 대표 체제의 민주당을 비판해왔던 당 내 비주류들이 연쇄적으로 당을 떠날지 아니면 단발성으로 그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박태홍 기자

한동훈, 연말·연초 '원포인트' 교체 가능성

(법무부장관)

>> 1면 '장관 절반 바뀌나'서 계속

박민식 보훈부 장관 후임은 강정애 전 속명여대 총장, 김정수 전 육군사관학교장, 송명순 전 국방정보본부 해외정보차장, 김석호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등이 언급된다.

아울러 여성가족부 장관은 현재로서는 후임 인선보다 김현숙 장관 유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이와 함께 특히 총선 등판권이 갈수록 힘을 받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거취도 최대 관심사다. 한동훈 장관이 교체될 경우를 대비한 인사 검증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대통령실은 법무부 장관의 경우 이번 개각에 포함하기보다는 연말·연초에 '원포인트'로 인선을 단행하는 쪽에 무게를 싣고 있다. 출마를 위한 법적 공직자 사퇴 시한은 내년 1월 11일이다.

한동훈 장관의 후임으로 박성재 전 서울고검장(사법연수원 17기)과 함께 강력·특수통 검사 출신인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사법연수원 14기)이 새롭게 부상하는 분위기다.

한편 윤 대통령은 수석비서관 교체에 따른 후임 인선도 마무리했다.

/박정익 기자 pathfinder@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



그 모든 순간, 끝까지 함께할 내 편 하나

앞으로도 계속될 대전하나시티즌의 뜨거운 도전을
하나금융그룹이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금융그룹

| 하나금융지주 | 하나은행 | 하나증권 | 하나카드 | 하나캐피탈 | 하나생명 | 하나손해보험 | 하나저축은행 |
| 하나자산신탁 | 하나대체투자자산신탁 | 하나에프앤아이 | 하나벤처스 | 하나편드서비스 | 하나금융 TI | 핀크 |

3분기 저축은행 우울한 성적표... 우리금융 M&A 행보는

5개사 당기순익 전년비 66.6% ↓
SBI저축銀 518억 달성 '깜짝반등'
OK저축銀 누적순익 704억 '최고'

상상인·애큐은 올해 적자 기록에도
모두 수도권 매물로 '매력적' 평가

3분기 저축은행의 실적 성적표가 모두 나오면서 인수합병(M&A) 시장의 관심이 집중된다. 우리금융지주가 저축은행 인수 의지를 타진한 만큼 3분기 실적이 분수령으로 작용할 수 있어서다.

3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3분기 주요 저축은행 5곳(SBI·OK·웰컴·한국투자·페퍼저축은행)의 당기순이익은 642억원이다. 지난해 동기(1920억원) 대비 66.6% 줄었다. 3분기 실적을 저축은행 상위 10곳으로 확대하면 순이익은 375억원으로 축소된다. 적자 규모는 전년 동기(7862억원) 대비 95.2% 늘었다. 하반기 반등을 예상한 업계의 관측이 빗나간 모양새다.

3분기 순이익이 가장 높은 곳은 SBI저축은행이다. 당기순이익 518억원 달



올 들어 저축은행의 순이익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뉴시스

성했다. 지난 1분기(37억원)와 2분기(68억원) 당기순이익이 두 자릿수에 그치면서 부진을 겪었지만 깜짝 반등에 성공했다는 평가다. 이어 OK저축은행의 당기순이익은 169억원이다. 올해 누적순이익은 704억원으로 가장 높다.

웰컴저축은행의 3분기 당기순이익은 120억원이다. 누적순이익은 358억원을 거뒀다. 지난해 동기 대비 순이익은 각각 49.36%, 52.64씩 줄었지만 세

자릿수 순이익 달성에 성공했다. 이어 한국투자저축은행의 3분기 당기순이익은 83억원이다. 누적순이익은 114억원이다.

페퍼저축은행은 3분기 248억원의 순손실을 기록했다. 누적순손실은 677억원이다. 그간 중소기업 대출 중심 포트폴리오를 구성한 만큼 경기하락에 취약했다는 설명이다.

페퍼저축은행 관계자는 "자금 유통

이 필요한 중소기업 중심을 대출을 단행한 만큼 취약한 부분이 있었다"며 "올해 손실은 총당 가능한 수준으로 건전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했다.

저축은행의 3분기 실적에 인수합병(M&A) 시장의 이목이 쏠린다. 우리금융지주가 포트폴리오 다변화의 일환으로 저축은행 인수를 고려하고 있는 만큼 매각 방향을 결정지을 수 있는 지표로 활용될 수 있어서다.

현재 M&A시장에 이름을 올린 곳은 상상인·애큐은·한화·조은저축은행 등 네 곳으로 알려졌다. 해당 저축은행 모두 서울, 경기·인천 지역에 연고를 두고 있다. 우리금융지주의 저축은행 인수 사유로 수도권 영업 진출이 자리잡고 있는 만큼 네 곳 저축은행 모두 매력적인 매물이란 평가다.

당초 우리금융지주와 한 차례 인수합병 소식이 있었던 곳은 상상인저축은행이다. 상상인·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은 3분기 433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거뒀다. 이어 애큐은저축은행 또한 3분기 46억원의 순손실을 기록했다.

한화저축은행과 조은저축은행은 3분기 각각 10억원, 4억원의 순이익을 달성했다. 누적순이익은 각각 60억원, 38억원으로 집계됐다. 상상인·애큐은저축은행 대비 규모는 작지만 흑자를 거뒀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작용한다.

업계에서는 올해 적자를 기록했지만 상상인저축은행과 애큐은저축은행의 인수 가능성이 더 높을 것으로 예상했다. 한화저축은행과 조은저축은행의 규모가 나머지 저축은행 대비 뒤쳐지기 때문이다. 3분기말 기준 저축은행 네 곳 거래자 수는 ▲상상인저축은행(24만3365명) ▲애큐은저축은행(19만4237명) ▲한화저축은행(1만640명) ▲조은저축은행(4013명) 순이다.

한 금융업계 관계자는 "저축은행의 경우 중저신용 및 중소기업 중심 대출을 취급하는 만큼 신규 회원 확보에 투입하는 마케팅 비용이 커질 수 있다"며 "다만 우리금융 측이 상상인저축은행 인수 포기 의사를 한 밝힌 만큼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산 기자 kimsan119@metroseoul.co.kr

서울 아파트값 28주 만에 상승세 멈췄다

매매수급지수 4주 연속 하락세
관망세 깊어져 전체 보합세 전환

최근 정부의 대출 규제 강화와 고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서울 지역의 매매가격이 28주 만에 상승세를 멈춘 것으로 나타났다. 매매수급지수의 겨우 4주 연속 하락세를 보이며 매수 관망세가 짙어지는 모양새다.

3일 한국부동산원의 '주간아파트동향'에 따르면 11월 넷째 주(27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상승을 멈추고 보합(0.00%)을 기록했다. 지난해 5월 첫째 주(0.01%) 이후 지속된 상승세가 28주 만에 꺾였다.

권역별로는 강북권에서 용산구(0.10%→0.05%)가 이촌동 주요 관심단지, 동대문구(0.06%→0.03%)는 답십리·전농·장안동 위주로 상승했다.

노원구(-0.04%→-0.04%)는 상계동 구축, 강북구(-0.03%→-0.03%)는 미아동 대단지, 서대문구(0.05%→-0.

02%)는 흥은·흥제동 대단지 위주로 하락했다.

강남권에서는 영등포구(0.09%→0.04%)가 양평·당산동, 양천구(0.07%→0.03%)는 목·신정동 위주로 오름세를 보였다. 강남구(-0.02%→-0.04%)는 역삼·개포동 구축, 관악구(0.01%→-0.03%)는 봉천동, 동작구(0.01%→-0.02%)는 상도·대방동 위주로 떨어졌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급매물 위주로 매수문의는 존재하나, 가격상승에 대한 기대심리가 낮아지며 거래가 감소하고 관망세는 깊어졌다"면서 "매물이 누적되며 매도희망가가 하락 조정되는 등 서울 전체가 보합세로 전환됐다"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 따르면 강북구 미아동에 위치한 'SK북한산시티'는 지난달 전용면적 84㎡가 6억3300만원에 거래됐다. 전달 매매가격(6억7300만원) 대비 4000만원 하락했다. 강남구 개포동에 위치한 '주공7단

지'의 경우 지난달 전용면적 73㎡가 22억8500만원에 거래되면서 지난 8월(24억8000만원) 대비 1억9500만원 떨어진 가격에 거래됐다.

서울 지역의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4주 연속 하락했다. 11월 넷째 주(27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85.3으로 전주(86.4)보다 1.1포인트 떨어졌다.

매매수급지수는 한국부동산원이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설문해 수요와 공급 비중(0~200)을 지수화한 수치다. 100을 기준으로 0에 가까울수록 집을 팔려는 사람이, 200에 가까울수록 사려는 사람이 많은 것을 의미한다.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거래 부진이 지속되고 있지만 아파트 값은 급락하기보다 박스권 내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면서 "주책 시장의 상하방 요인이 맞서는 가운데 지역 및 단지별 가격 차별화가 예상된다"고 전했다.

/김대환 기자 kdh@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가운데)이 그룹 주요 관계사 직원들과 함께 'NEW 하나'를 다짐하는 세리모니를 펼치고 있다.

/하나금융그룹

"모든 구성원 꿈 실현 위해 동반자 될 것"

하나금융그룹 출범 18주년 기념식

"하나금융그룹만의 성장동력으로 새로운 도약이 필요한 시점이다. 모든 사회 구성원과 행복한 미래를 꿈꿀 수 있는 동반자가 되어야 한다."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은 지난 1일 그룹 출범 18주년 기념식에서 'NEW 하나 모두의 행복, 미래를 꿈꾸다'라는 그룹의 미래 방향을 설정하며 이같이 말했다.

'NEW 하나 모두의 행복, 미래를 꿈꾸다'는 현재의 하나금융그룹이 있기까지 밑거름이 되어온 많은 유산을 계승하고 손님의 사랑에 진심을 더해 새로운 금융으로 나아가자는 의미다.

'진심의하나(손님가치)'는 '손님의기

쁨, 그 하나를 위하여'란 하나금융그룹의 창업정신을 기반으로 하나금융그룹을 거래하는 손님을 넘어 전 국민을 위해 진심을 다하겠다는 의미를 담았다.

또한, '세상의 하나(사회가치)'는 함께 나누는 금융, 희망을 더하는 금융, 모두 함께하는 착한금융을 통해 사회 모든 구성원이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나금융그룹이 동반자가 되겠다는 의미다.

함 회장은 "그룹의 성장과 도전의 역사를 되새기고, 하나금융만의 성장동력에 기반한 새로운 도약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하나금융그룹이 손님, 직원, 사회공공체를 포함한 우리 사회 모든 구성원의 행복과 미래를 꿈꾸게 하는 동반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

우리은행, 더 뱅커 '대한민국 최우수 은행상' 수상

2023년 올해의 은행상 시상식
'상생금융 3·3 패키지' 높은 평가

우리은행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영국 런던 쉐라톤 호텔에서 글로벌 금융전문지 더 뱅커(The Banker)가 개최한 2023년 올해의 은행상 시상식에서 '대한민국 최우수 은행상(Bank of the Year in South Korea)'을 수상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수상은 우리은행의 다섯 번째 수상으로 지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 연속으로 '대한민국 최우수 은행

상'을 수상했다. 특히 지난 2020년에는 국내은행 최초로 글로벌, 아시아, 한국 3개 부문을 석권하며 국제적 위상을 증명한 바 있다.

더 뱅커는 1926년 처음 발간된 영국 파이낸셜타임즈(Financial Times)의 월간 금융지로, 매년 전세계 100대 은행 순위표와 120여개국 국가의 지역별 '올해의 은행(Bank of the Year)'을 선정하며 전 세계 금융권으로부터 권위를 인정받고 있다.

더 뱅커는 우리은행이 팬데믹 이후 어려운 금융환경 극복을 위해 중소기업

고객의 디지털 전환 지원 및 금융플랫폼(Won Biz Plaza)을 제공하고 금융취약계층 뿐만 아니라 전고객층을 대상으로 시행한 금융지원(우리상생금융 3·3 패키지) 정책을 높게 평가했다.

조병규 우리은행장은 "기업과 고객의 성장을 지원하며 함께 동반성장하는 것이 우리은행의 창립이념이자 ESG 경영의 본질이라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기업과 금융취약계층을 위한 상생금융과 서비스 고도화를 124년 역사를 거쳐 지켜온 시대적, 사회적 소명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승용 기자 lsy2665@

현대건설, 우크라이나 원자력공과 사업 협력

현대건설이 우크라이나 원자력공사와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원전 분야 글로벌 진출에 속도를 내고 있다.

현대건설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우크라이나 원자력공사 에너토고아툼(Energoatom)과 원전사업 전반에 대한 협력의향서(LOI)

를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양사는 협력의향서에 기반해 우크라이나 대형원전 및 SMR 사업 추진에 대한 지원, 신규 원전개발을 위한 재원 확보, 원전 연구개발 관련 기술·경험 교류 등 원자력 분야 협력을 모색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김대환 기자



현대차 디 올 뉴 코나



기아 더 2024 셀토스



한국지엠 트랙스 크로스오버 /각사

경제성·실용성 다 갖춘 ‘소형SUV’ 현대차·기아, 한국지엠 ‘3강 체제’

글로벌 경기침체 장기화 등에
효율성 높은 소형 SUV 인기

기아 ‘셀토스’, 올 4.7만대 판매
현대차 ‘코나’ 전년비 326% ↑
쉐보레 트랙스 4일새 1만대 계약

현대자동차와 기아, 한국지엠이 국내 소형스포츠유틸리티차(SUV) 시장에서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다.

2010년 중반 국내 SUV 시장의 성장 발판을 마련한 소형 SUV 시장은 2020년대 신차 부재로 위축됐지만 최근 글로벌 경기침체 장기화와 고금리 등의 영향으로 되살아나고 있다. 특히 셀토스, 코나, 트랙스 등 효율성 높은 모델을 중심으로 판매량이 확대되고 있다.

3일 각사 실적자료에 따르면 소형 SUV 강자 기아 셀토스는 꾸준한 인기를 이어가고 있다. 올해 1~11월 누적 판매 대수는 4만7079대로 전년 동기(3만8602대) 대비 22.0% 성장했다. 지난달 4446대 판매되며 전년 동월 대비 23.9% 성장했다.

현대차 소형 SUV 코나는 올해 1~11월 누적 판매 대수는 3만2595대로 전년 동기(7660대) 대비 325.5% 성장했다.

지난달 3209대 판매되며 전년 동월 대비 363.1% 가파른 성장세를 기록했다.

2013년 국내 자동차 시장에 소형 SUV를 알린 쉐보레 트랙스는 당시 주목받지 못했지만 실용성과 감쪽한 디자인을 앞세워 글로벌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다. 한국지엠 트랙스 크로스오버는 올해 1~11월 2만2019대의 판매를 기록했다. 특히 트랙스 크로스오버는 ‘수출 효자’ 모델로 급부상하고 있다. 트랙스 크로스오버의 해외 수출은 지난달 2만5826대를 기록했으며 1~11월 누계 판매는 18만5887대로 지속적인 인기를 이어가고 있다.

소형 SUV 모델의 인기 비결은 한층 넓어진 실내 공간과 뛰어난 연료 효율성, 다양한 첨단 편의 기능 적용 등을 꼽을 수 있다.

우선 기아 셀토스는 올해 연식변경을 통해 전자식 변속 다이얼 등을 확대 적용했다. 또 더 2024 셀토스는 고객 선호 사양을 확대 적용해 상품 경쟁력을 강화하고 내외장 디자인을 고급화했다.

현대차 코나는 2017년 출시 이후 올 초 2세대 풀 체인지버를 거쳤다. 이전 모델보다 한층 커진 차체에 소형 SUV지만 다양한 첨단 편의 시설과 안전 장치를 갖추고 있다. 가솔린 1.6 터보, 가솔

린 2.0, 가솔린 1.6, 하이브리드, 전기 차까지 총 4종의 파워트레인을 적용해 소비자들에게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하고 있다.

한국지엠 쉐보레 트랙스 크로스오버는 가성비를 앞세워 지난 3월 출시 이후 영업 4일 만에 사전계약 1만대를 넘어섰다. 특히 이달 3000대 가량의 판매량을 기록하면서 인기를 이어가고 있다. 트랙스 크로스오버는 2052만 원~2739만 원의 가격으로 경쟁 모델보다 저렴하면서도 뛰어난 공간 활용성을 제공하고 있다. 또 2000만원대 CUV 트랙스 크로스오버는 다운 사이징된 엔진으로 배기량을 낮췄다. 1.2리터 3기통 최고출력(139마력), 최대토크(22.4kgm), 복합연비(12.3km/L)로 경제성과 운동성을 두루 갖추고 있다.

완성차 업계 관계자는 “최근 국내 자동차 시장은 가격이 저렴하면서도 실용성이 높은 소형 SUV의 증가세가 눈에 띈다”며 “현대차와 기아, 한국지엠이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르노코리아와 KG모빌리티가 내년 신형 모델을 출시할 경우 시장은 더욱 빠르게 성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이산화탄소로 1kg 상당 일산화탄소 제조 SK이노, 탄소감축 기술 실증 성공

환경과학기술원 독자 촉매 기술
탄소저감 화학제품 생산에 기여

SK이노베이션이 전기화학적 촉매 반응을 활용해 이산화탄소를 일산화탄소로 전환하는데 성공했다. 이렇게 생산된 일산화탄소는 다양한 화학제품의 기초물질로 활용돼 탄소저감 화학제품 생산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SK이노베이션 연구개발(R&D) 조직인 환경과학기술원은 이산화탄소를 선택적으로 일산화탄소로 바꾸는 ‘이원자(서로 다른 두개의 원자를 하나씩 붙인 형태) 촉매 기술’을 활용해 하루 1kg 상당의 일산화탄소를 제조하는데 성공했다고 3일 밝혔다.

실증 결과는 화학공학 전문 학술지 ‘케미컬 엔지니어링 저널’ 지난달 29일자에 게재됐다. 실증에는 국내 전기화학 시스템 전문업체 ‘테크윈’이 연구에 참여했으며 이원자 촉매를 활용한 일산화탄소 대량 생산은 SK이노베이션 환경과학기술원이 최초 구현한 것으로 평가 받는다.

이원자 촉매기술은 SK이노베이션 환경과학기술원 연구진이 개발해 지난해 환경분야 학술지 ‘어플라이드 카탈리시스 B: 환경’에 게재된 바 있다. 수백개의 원자가 뭉쳐진 기존 촉매와 달리 원자를 하나씩 분리해 만든 단원자 촉매는 활성을 더욱 높이는 기술로 평가 받는다. 이에 더해 이원자 형태로 만

들면 촉매 성능이 더 향상되는 걸 확인한 것이다.

올해 연구에서 연구진은 니켈과 철이 이원자 형태로 존재하는 촉매를 제조해 촉매 성능을 높였고, 이를 여러 전극 셀이 적용된 전해조에 적용했다. 전해조에서의 전기화학 촉매 반응을 거쳐 이산화탄소가 일산화탄소로 전환된 것이다.

SK이노베이션 환경과학기술원은 이번 연구가 기후위기를 가속화하는 주요 요인인 이산화탄소를 줄이면서 일산화탄소를 확보하는 ‘일석이조’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했다. 일산화탄소는 초산, 플라스틱 등 화학제품 생산에 쓰이며, 최근에는 메탄올, 합성원유 등 대체연료 생산 원료로 주목 받고 있다. SK이노베이션 환경과학기술원은 앞으로 차세대 탄소저감 기술 상용화를 위해 촉매 성능 개선 및 양산역량 확보를 지속하며, 대내외 협업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성준 SK이노베이션 환경과학기술원장은 “탄소감축과 기후위기 극복은 우리 모두가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라며 “이번 성과는 에너지·화학 연구개발 과정에서 축적된 촉매 기술 역량이 탄소감축 기술 개발에 활용된 사례로, 앞으로도 SK이노베이션 R&D 핵심역량을 더욱 강화해 탄소감축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기아 EV9

‘기아 EV9’ 상품성 글로벌 우수성 입증

북미·유럽 등서 ‘올해의 차’ 수상

우리나라 최초의 대형 전기 스포츠 유틸리티차(SUV) 기아EV9이 유럽에서 연이은 수상과 세계 3대 자동차 상으로 꼽히는 북미, 유럽, 세계 올해의 차 후보에 오르며 우수한 상품성을 입증했다.

기아는 덴마크 자동차 기자 협회가 주관하는 ‘덴마크 올해의 차 2024’에서 기아의 대형 전동화 SUV EV9이 ‘올해의 혁신상’을 받았다고 3일 밝혔다. 이와 함께 EV9은 스페인 유력 일간지 라 반가르디아가 전문가 심사단과 독자들의 투표로 선정한 ‘올해의 차 2023’도 수상했다. /양성운 기자

코나·GV80 등 완성차 연말 프로모션

제네시스 보유고객 ‘G90’ 할인
KG모빌리티 포인트 제공 행사

국내 완성차 업계가 연말 판매량 확대를 위해 다양한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다.

3일 완성차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는 이달 아이오닉5와 아이오닉6를 320만원, 코나 일렉트릭을 220만원 할인한다. 일부 재고차에 한해 그랜저와 그랜저 하이브리드, 넥쏘는 최대 400만원, 코나 하이브리드는 150만원, 코나와 투싼은 100만원 각각 할인한다.

현대차의 프리미엄 브랜드 제네시스는 수입차나 제네시스 차를 보유한 고객이 G90을 사면 100만원 할인한다. G80·G80 전동화 모델·GV80·GV80 쿠페는 50만원, G70·G70 슈팅브레이크·GV70·GV70 전동화 모델·GV60은 30만원을 각각 할인한다.

기아는 이달 K5, 카니발, 카니발 하이브리드, K8을 구매하는 선착순 1500명을 대상으로 K5 최대 10%, 카니발 최대 5%, 카니발 하이브리드 최대 7%, K8 최대 200만원을 각각 할인한다.

K5와 카니발은 최근 출시된 페이스리프트(부분변경) 신형이 아닌 구형 모델이 할인 대상이다. 기아는 또 전기차 EV6(GT 제외)를 320만원, 니로EV를 120만원, 니로 플러스를 120만원 할인 판매한다.

르노코리아자동차는 XM3와 QM6에 ‘굿바이 2023 특별 할인(연말 할인)’ 50만원, 전국 영업 전시장 특별 프로모션 차량 50만원 할인을 각각 도입했다. XM3는 연말 할인 50만원 대신 36개월 0.9%의 초저리 할부 혜택을 고를 수 있다. SM6 TCe300은 연말 할인 100만원, TCe300 특별 할인 300만원, 특별 프로모션 차 할인 20만원 등 420만원 할인이 적용된다.

KG모빌리티는 더 뉴 티볼리(에어포함)를 구매하는 고객에게 최대 150만 KGM포인트를 제공한다. KGM포인트는 KG모빌리티 서비스네트워크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렉스턴을 사면 최대 200만 KGM 포인트를 받거나 195만원 상당 4WD(사륜구동) 시스템(195만원)을 무료로 장착할 수 있다. /양성운 기자



LG전자, Z세대 겨냥 ‘그라운드 220’ 오픈

LG전자가 Z세대를 겨냥해 일상 속에서 제품을 체험하는 공간을 마련했다. LG전자는 15일 서울 양평동에 ‘그라운드 220’을 오픈한다고 3일 밝혔다. LG전자 제품과 서비스를 차분하고 여유롭게 경험하며 쉬고 배우는 나무의 일상 공간으로 기획했다. /LG전자

금호석화, CCUS 사업 핵심설비 첫 삽

CO₂ 포집·액화 플랜트 착공식
연간 6.9만 톤 규모 재사용 기대

금호석유화학이 배기가스의 이산화탄소를 포집해 탄산으로 전환하는 체계를 마련했다.

3일 금호석유화학에 따르면 지난 1일 금호석유화학 여수 제2에너지 사업장에서 이산화탄소 포집 및 활용(CCU S) 사업의 핵심 설비인 CO₂ 포집 및 액화 플랜트의 착공식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공사에 돌입한 포집 및 액화 플랜트는 2025년 초에 준공될 예정이다. 플랜트가 준공되면 금호석유화학 열병합발전소에서 배출되는 배기가스에서 이산화탄소 선택적으로 포집돼 케이

엔에이치특수가스의 액화 공정을 거쳐 탄산으로 재탄생하는 프로세스가 구축된다. 플랜트 전반에 대한 EPC는 현대중공업과 위시스템이 진행한다.

금호석유화학은 플랜트 준공 이후 연간 6만9000t 규모의 이산화탄소를 포집해 재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는 매년 2만7000여 그루의 나무를 새로 심는 효과다.

백종훈 금호석유화학 대표는 “포집된 이산화탄소를 다른 고부가 탄산화 합물로 전환하는 기술을 지속 개발해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동시에 신규 먹거리와 관련한 새로운 기회를 모색할 것”이라 밝혔다.

/차현정 기자 hyeon@

정유업계, SAF 사업 첫 걸음... “세제·인센티브 등 지원 절실”

(바이오항공유)

친환경 바이오 연료사업 확대 본격화
글로벌 경쟁 위한 구체적 지원 필요
R&D 지원 확대 등 투자 확대해야

국내 정유업계가 친환경 바이오항공유(SAF) 사업 진출에 나섰지만 해결해야 할 숙제도 산적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유사들이 SAF 사업에 공격적인 투자를 단행하고 있지만 정부 지원을 받은 미국과 일본 등과의 경쟁을 위해서는 우리 정부의 구체적인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3일 정유업계에 따르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지난 11월 23일 전체회의를 통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이를 통해 정유사가 SAF를 생산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설비 투자 지원책이 마련된다.

SAF는 폐식용유 등 바이오 원료를



대한항공 항공기에 급유가 진행되는 모습.

/대한항공

기반으로 생산하는 친환경 연료다. 특히 기존 원유 기반 항공유 대비 80% 탄소 배출량을 줄일 수 있어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에 정유업계는 SAF사업에 적극 참여 중이다. SK이노베이션은 폐자원 기

반 원료 회사 대경오엔티를 인수해 SAF 원료 기반을 마련했고 GS칼텍스는 정부 및 관련 기관과 협력해 SAF 실증에 참여하고 있다. 에스오일은 삼성물산과 MOU(양해각서)를 체결해 차세대 SAF 개발을 계획중이며 HD현대오일뱅크는

대산공장 일부 설비를 SAF 주원료인 HVO 생산설비로 전환할 예정이다.

다만 국내업체들이 해외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향후 신규 투자에 대한 세금 공제 등 국가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주요국은 지난 2020년 무렵부터 법과 제도를 정비해 SAF시장에 대비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특히 미국은 SAF에 대한 세금 공제를 통과시키는 등 세제 혜택을 주며 SAF 생산을 적극 장려하고 있다. 또한 미국 내 SAF 생산 시설 수확을 위해 지난 2021년부터 5년 동안 10억 달러 규모의 보조금을 책정하기도 했다.

일본 역시 SAF사업 투자에 주력하고 있다. 일본은 항공사에 SAF를 공급할 수 있는 제조, 원자재, 운송 인프라 개발을 지원한다. 더불어 일본 기업이 참여한 해외 사업에서 생산한 SAF 수입품에 대한 면세도 고려 중이다.

그러나 국내 정책은 선진국 정부와 기업이 구체적인 정책·사업 목표에 발맞춰 앞서 나가는 것 대비 뒤쳐졌다는 평가가 따른다. 해외 주요국이 SAF 사업에 대한 전폭적인 투자와 지원을 이어가고 있는 반면 국내는 아직 지원 확대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SAF생산 기술 개발을 위한 R&D 지원을 확대하고 인프라 구축을 위한 투자도 확대해야 할 전망이다.

정유업계 관계자는 “정부는 SAF 사업 활성화를 위해 정책적으로 실증연구를 많이 해왔고 최근에는 법적 제정도 마련됐다”며 “이러한 정책적 기반을 바탕으로 세제 지원이나 인센티브 등 혜택을 확대하고 정부와 기업이 함께 연구를 활발히 진행한다면 국내 업계도 SAF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 말했다.

/차현정 기자 hyeon@metroseoul.co.kr

“90여종, 골라서 체험하는 재미”... 색다른 인디게임 ‘후끈’

크포

버닝비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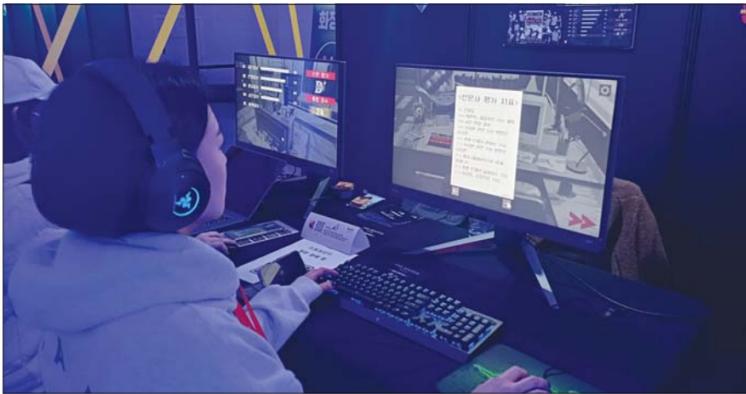
동대문 DDP서 페스티벌 진행
튜토리얼 존·버닝시티 등 구성
인디게임 개발자들 긍정적 평가

인디게임 창작자들의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성장하는 기회의 장 ‘버닝비버’가 올해 2회차를 맞이했다.

버닝비버는 스마일게이트그룹이 주최하고 스마일게이트 퓨처랩이 주관하는 온오프라인 하이브리드 인디게임 페스티벌이다. 올해 버닝비버 오프라인은 서울 동대문 DDP아트홀1관에서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사흘간 열렸으며, 온라인(스토브인디)에서는 오는 10일까지 열린다.

지난 1일 버닝비버 현장을 찾았다. 버닝비버 현장입구부터 페스티벌을 관람하기 위한 관람객들로 긴 대기줄이 이어졌다.

올해 버닝비버의 슬로건인 ‘비버월드’에 뛰어든다(Jump Into Beaver World)는 게임 창작자, 개발자, 업계종사자, 관람객들이 모두 인디게임을 즐기자는 뜻을 담았다.



비주얼 노벨, 어드벤처 게임 ‘편집장’을 체험해보고 있는 기자의 모습.

/최빛나 기자

세계관 체험이 가능한 ‘튜토리얼존’을 시작으로 ▲기획전시 ‘ver0.0.1’ ▲온오프라인 전시부스 공간 ‘버닝시티’, ‘버닝빌리지’ ▲무대 이벤트 공간 ‘비버광장’ ▲버닝비버 굿즈샵 ▲창작자 전용라운지 등으로 구성된 것이 특징이다.

행사장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크고 작은 다양한 콘셉트의 귀여운 비버캐릭터들이 관람객들을 맞이하고 있었다.

현장에서 만난 스마일게이트 관계자는 “비버는 열심히 나무를 모아 자신이 몸집보다 20배 더 큰 댐을 짓는 자연의 건축가로 유명한데 게임을 만드는 창작자가 비버와 비슷하다는 것을 더욱 강

조하고싶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해에 비해 달라진 점은 관람객들이 좀 더 쾌적한 공간에서 시연해 볼 수 있는 장소로 결정했다. 또 80개에서 90개 부스로 늘어났다는 점 등도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 행사장 입구에는 ‘비버월드’의 모험’을 주제로 한 포도존, 10종의 기획 전시가 있었다. 포도존부터 기획 전시, 부스 내 게임 시연존까지 자연스럽게 이어져 관람객들의 기대감을 한층 높였다.

해당 부스에서는 대부분의 게임들을 시연해 볼 수 있다.

가장 인상깊었던 게임은 플로리스 다크니스다. 플로리스 다크니스는 시각 장애인들을 위해 만든 게임이다. 현장에서는 시각이 아닌 청각에 의존해 암흑속에서 미로를 탈출해야 한다. 실제 PC에는 검은 화면이었고 헤드폰을 착용한 채 손가락만 움직여야 했다.

현장에서 만난 박재형 올드아이스 대표는 “우리의 기술에 대한 관심을 가져준 기업이 스마일게이트 퓨처랩이다. 이들의 지원이 없었다면 올해 관람객들에게 소개하기 힘들었을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게임사 담당자들은 올해 페스티벌 참가에 대해 대부분 ‘긍정적’이라는 평이다. 모 게임사는 “다른 곳에서 쉽게 받아볼 수 없는 지원을 받았다. 구체적으로 창작에만 집중할 수 있게, 먹는 부분부터 관리 감독까지 전반을 스마일게이트 퓨처랩에서 세심하고 꼼꼼하게 체크 및 확인했다. 인디게임 개발사들 입장에서는 개발해도 홍보할 수 있는 수단이 많이 없는데 이같은 기회를 통해 알릴 수 있게 돼 너무 뿌듯하고 감사하다”고 전했다.

/최빛나 기자 vitna@



제네시스 엑스 그란 베를리네타 비전 그란 투리스모 콘셉트

제네시스 레이싱 게임용 콘셉트 차 디자인 철학 담아 첫 선

제네시스 브랜드(이하 제네시스)가 디자인 철학을 반영한 새로운 레이싱 게임용 콘셉트 모델을 선보였다.

제네시스는 2일(현지시간)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e스포츠 토너먼트 ‘그란 투리스모 월드 시리즈’ 파이널 경기에서 ‘제네시스 엑스 그란 베를리네타 비전 그란 투리스모 콘셉트(이하 제네시스 엑스 그란 베를리네타 콘셉트)’를 실물 전시를 통해 처음으로 선보였다고 밝혔다.

‘그란 투리스모 월드 시리즈’는 세계적인 디지털 레이싱 게임 ‘그란 투리스모 7’의 글로벌 챔피언십 대회로 올해 10회째를 맞이했다. 제네시스는 지난 2022년부터 그란 투리스모의 공식 파트너사로 활동하며 제네시스 엑스 콘셉트를 기반으로 한 GR3 콘셉트, G70를 기반으로 한 GR4 GT 등을 게임 내에서 선보인 바 있다.

‘제네시스 엑스 그란 베를리네타 콘셉트’는 제네시스의 고유한 디자인 언어인 ‘역동적인 우아함’을 감성적으로 구현했다. 제네시스만의 디자인 요소들을 레이싱 게임 특색에 맞게 반영해 섬세하면서도 강렬한 브랜드 정체성을 표현한 것이 특징이다.

차량 전면부 디자인은 두 줄의 쿼드램프를 활용해 새롭게 선보이는 크레스트 그릴 형상이 특징적이다. 후면부는 제네시스 차량에서 공통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타원 형태의 디자인을 채택했으며, 공기역학을 고려한 리어 스포일러를 적용해 안정감 있는 고속 주행 성능을 제공한다.

/양성운 기자 ysw@

포스코그룹 ‘기업시민’ 경영 아이디어 공유 에코프로비엠, 44조 양극재 공급계약 체결

‘기업시민 레벨업 그라운드’ 발표대회

포스코그룹이 대학생들을 초청해 ‘기업시민 레벨업 그라운드’ 발표대회를 열고 기업시민 경영 아이디어를 공유했다고 3일 밝혔다.

기업시민 레벨업 그라운드는 ‘기업시민 경영과 ESG’ 과목을 수강한 대학생들이 기업경영의 새로운 트렌드를 서로 배우고, 포스코그룹의 멘토 사원들과 함께 기업시민 프로젝트를 수행한

결과를 나누는 자리다.

12월 1일 서울 포스코센터에서 열린 행사에는 김학동 포스코 부회장, 김성근 포스텍 총장과 2023년 2학기에 ‘기업시민 경영과 ESG’ 과목을 운영한 강원대, 경북대, 경상국립대, 부산대, 서강대, 서울여대, 숙명여대, 순천대, 제주대, 포스텍, 한동대, 한양대(가나다순) 등 12개 학교 학생들, 협업 프로젝트를 함께한 포스코그룹 임직원 등 총 250여 명이 참석했다.

/양성운 기자

삼성SDI에 5년간 대규모 공급

에코프로비엠과 삼성SDI가 장기 공급 계약을 맺으며 협력관계를 굳건히 다졌다.

3일 에코프로비엠에 따르면 지난 1일 삼성SDI와 충북 청주시 에코프로비엠 본사에서 대규모 양극재 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기간은 2024년 1월부터 2028년 12월까지 총 5년이며 공급 금액은 최근

공급이 평균으로 계산해 약 44조원이다.

에코프로비엠의 이번 계약은 전방산업의 수요 부진으로 배터리 소재 업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으로 생산 물량은 물론 수익성 확보의 기반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에코프로비엠은 2024년 물량은 포함 캠퍼스에서, 2025년부터는 헝가리공장의 완공에 맞춰 헝가리에서 삼성SDI 헝가리 공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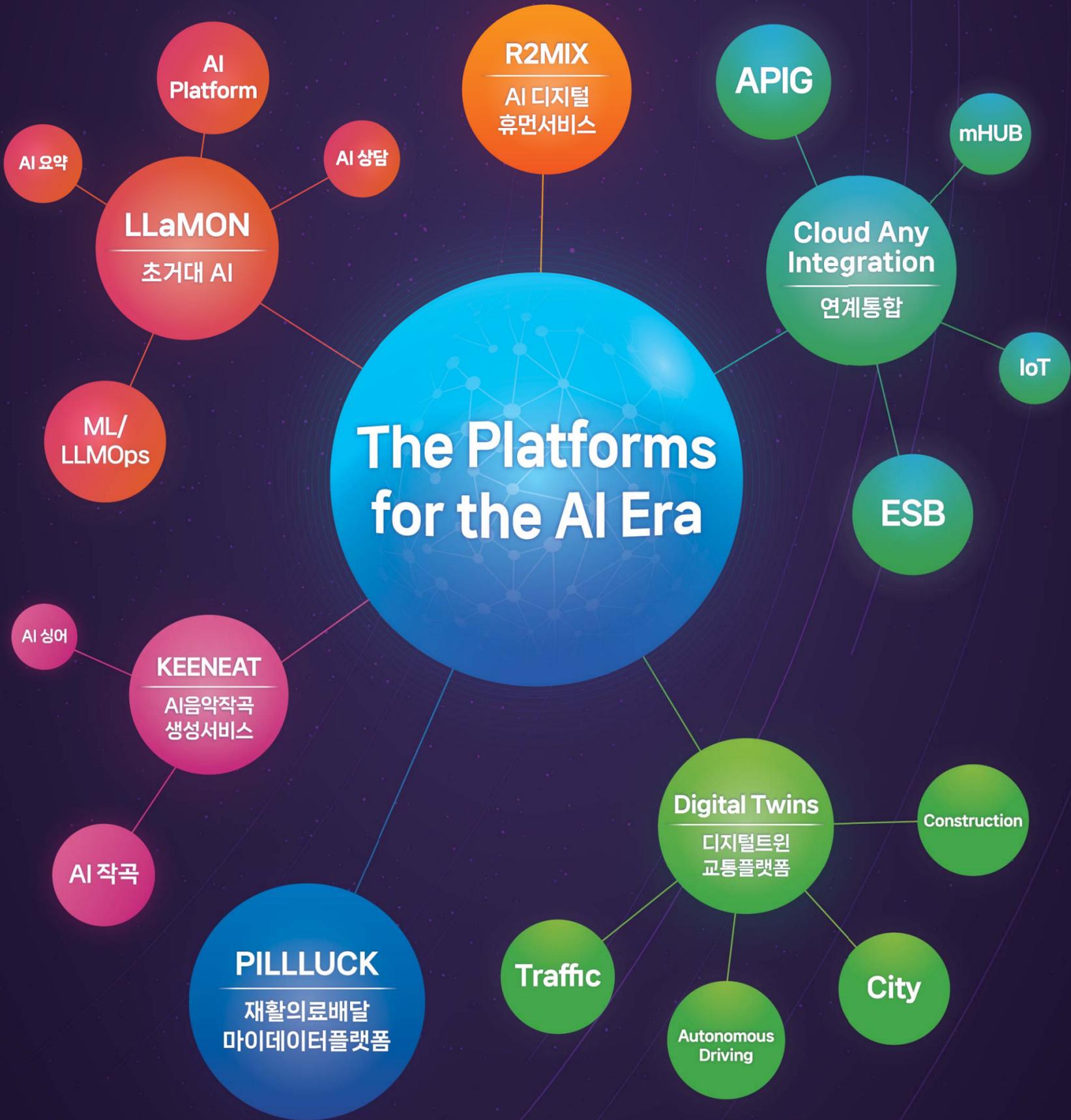
/차현정 기자 hyeon@



AI · 데이터 플랫폼 혁신 기업

Platforms for the AI Era

연계·통합 미들웨어 시장점유율 1등 기업에서
 AI·데이터·디지털휴먼, 디지털트윈 교통·자동차·시티·건설 플랫폼 기업으로 성장



금융당국 압박·인력감축 등… 증권사 “성과급 기대 어려워”

올 상반기 평균급여 전년비 20% ↓ NH투자증권, 35.1% ↓… 가장 큰 폭 영업익·순이익 1배 넘는 곳 없을 듯 IB 침체 장기화… 내년까지 이어져

업황 악화로 증권사들이 성과급을 대폭 줄인 데다, 인력 감축까지 이어지고 있어 증권사들의 인건비 지출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성과급 시즌을 앞둔 가운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리스크로 대규모 총당금을 적립한 것과 금융당국의 압박 등이 부담으로 작용하면서 예년만큼의 성과급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미래·한국투자·KB·NH·삼성·하나·신한·메리츠·키움·대신증권 등 10대 증권사의 반기 보고서를 살펴보면 올해 상반기 평균 급여액은 7817만원으로 전년 대비 약 20% 감소했다. 특히 삼성증권을 제외한 9개 증권사들이 두 자릿수 이상의 감소폭을 나타냈다.

가장 큰 감소 폭을 보인 곳은 NH투자증권으로 1억1100만원에서 7200만원으로 35.1%가량 줄었으며, 키움, 한국투자, KB증권 등도 20% 이상의 감소세를 기록했다. 키움증권은 8450만원에서 6127만원으로 27.49%, 한국투자증권은 1억2076만원에서 8882만원으로 26.44%, KB증권은 9700만원에서 7500만원으로 22.68% 감소했다. 이는 올해 성과급의 기준이 되는 지난해 증권사들의 실적이 부진하면서 상반기 성과급이 많이 줄어든 영향이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증권가의 모습. /뉴시스

여기에 증권사들이 몸집을 계속해서 줄이고 있는 데다 정치권과 금융당국이 증권사의 ‘성과급 잔치’를 문제 삼으며 압박하고 있는 점도 부담으로 작용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3일부터 10여개 증권사를 대상으로 부동산 PF 관련 과도한 성과급이나 위험 행위가 있는지에 대해 검사에 나섰다. 앞서 지난 7월에도 금감원은 증권사가 성과보수 지급 현황과 이연 지급 기간을 준수했는지 등을 점검했다.

다만 증시 활황과 부동산 업계 호황 등이 맞물리며 브로커리지(주식위탁매매) 수익과 IB(기업금융) 수익이 모두 증가한 2년 전인 2021년도에 따른 기저 효과일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통상 성과급 등의 급여는 전년도 실적을 기준으로 책정되므로 2021년도 실적이 반영된 전년 급여와 지난해 실적이 반영된 올해 급여만 보면 큰 폭으로 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올해는 금리 상승세가 지속됐고 이에 따른 채권 평가손실, 거래대금 감소, 부동산 PF 관련 대규모 총당금 적립 등으로 영업이익 또는 순이익이 1조원이 넘는 증권사들이 한 곳도 없을 것으로 전망되면서 증권사의 감원과 허리띠 졸라매기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올 3분기 10개 증권사 중 메리츠증권을 제외한 9개사는 모두 전년 동기보다 임직원 수가 감소했다.

증권사 한 관계자에 따르면 “성과급 자체가 IB, 자산관리(WM)에서 괄목할 만한 성장이 있어야지 줄 수 있는 건데 올해 같은 경우 거래대금이 조금 살아났다고 하더라도 IB 침체가 장기화되는 상황으로 특출난 사업 부분이 없어 작년, 재작년에 비해서는 적어질 수밖에 없다”며 내년에도 IB 업황이 안 좋다는 얘기가 많아 이와 같은 상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원관희 기자 wkh@metroseoul.co.kr

해외직구 수혜… “서비스 차별화로 성장”

metro 관심종목

CJ대한통운

주가 18.7% 급등… 10만원 선 넘어 알리익스프레스 등 제휴로 물량 확대

최근 해외 직구 배송 시간 단축으로 인해 물류량이 증가하면서 알리익스프레스 등을 전담하고 있는 CJ대한통운이 수혜주로 떠올랐다. 올해 3분기에는 시장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을 발표하면서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되고 있는 모습이다.

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최근 일주일간(11월 27일~12월 1일) CJ대한통운의 주가가 18.7% 가량 급등하면서 10만원 선을 넘어섰다. 1일 기준 주가는 11만3800원이다.

지난 3월 CJ대한통운은 알리익스프레스와 차이나이오 등과 제휴를 맺으면서 해외 물량이 크게 올랐다. 특히 알리익스프레스의 물동량은 1분기에만 346만개에서 3분기 904만개로 급증했다. 게다가 4분기에는 중국의 최대 쇼핑 축제인 광군제(11월 11일)와 블랙프라이데이, 크리스마스 등의 특수 이벤트가 존재하기 때문에 1000만개 이상으로 물량이 확대될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온다.

최고운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CJ대한통운은 서비스 차별화를 통해 네이버, 알리익스프레스 등 성장 화주들을 선점하고 있다”며 “택배 사업에서 풀필먼트와 알리익스프레스의 비중은 3분기 6%로 아직 낮지만 성장성 높은

고객들을 선점했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평가했다.

3분기 기준 CJ대한통운의 택배 물동량은 1년전과 대비해 6.8% 줄어들었고, 시장 점유율도 43.7%로 전년 동기보다 2.6%p 낮아졌다. 하지만 올해 3분기 영업이익은 1248억원으로 오히려 1년 전 대비 15.9% 상승했다. 이는 시장예상치를 3.6% 상회한 성적이다. 최 연구원은 “택배시장은 후유증 많았던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이동하고 있다”며 “그동안은 가격 경쟁에 기반한 양적 성장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서비스 차별화를 기본 전제로 우량화 주들과의 협력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신증권에 따르면 해외 직구 물량에 대해 도착 보장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갖춘 회사는 당분간 CJ대한통운이 유일하다. 양지환 대신증권 연구원은 “CJ대한통운은 인천 글로벌물류센터(GDC)와 도착 보장 인프라를 바탕으로 알리익스프레스와 같은 중국 온라인 물의 물량을 빠르게 처리하면서 택배 물량이 재차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기존 알리익스프레스는 우체국을 통해 국제우편으로 배송됐기 때문에 1~3주 가량의 시간이 소요됐지만, CJ대한통운을 통하면 3~5일 내로 배송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CJ대한통운의 전자상거래(이커머스) 성장세도 주목된다. 올해 3분기 CJ대한통운의 이커머스 부문 영업이익은 40억원으로 흑자전환됐다.

/신하은 기자 godhe@

증권사, ‘채권개미’에 투자위험 안 알려

채권 평가잔액 45.8억… 직접투자 ↑ 증권사, 민평금리 등 제대로 고지 안 해 금감원, ‘표준투자권유준칙’ 개정 추진

고금리가 이어지면서 개인투자자들의 채권 직접 투자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온라인 거래와 시장금리에 민감한 장기물에 투자자가 몰리고 있지만 증권사들이 가장 기본이 될 금리나 거래비용, 손실 가능성도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독당국은 투자자들이 채권의 투자위험 등을 제대로 알고 거래할 수 있도록 증권사의 영업 관행을 개선토록 할 방침이다.

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5월 말 기준 개인투자자가 직접투자한 채권의 평가잔액은 45조8000억원으로 2021년말(23조6000억원) 대비 2배 가까이 늘었다. 랩이나 신탁 등 간접투자보다는 위탁계좌를 통한 직접투자 위주로 증가했다.

연초 이후 5월까지 채권 직접투자는 국내채권 장외거래의 비중이 83.5%로 가장 컸다. 해외채권 장외거래와 국내채권 장내거래가 각각 8.3%, 8.2%를 차지했다.

연령별로는 60대 이상의 투자자가 절반이 넘었다. 온라인보다는 오프라인(77.2%)에서 주로 판매가 이뤄졌다. 다만 올해 들어 거래건수 기준으로는

개인투자자 채권 직접투자 현황



온라인(59.6%)이 오프라인(40.4%)을 앞질렀다.

이와 함께 그간 채권 장외거래는 단기사채의 거래비중이 높았지만 최근에는 장기물과 국채 위주로 거래가 증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시장금리가 크게 상승하고, 채권금리의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이자수익과 매매차익을 동시에 얻을 수 있는 채권에 대한 투자수요가 늘었다”며 “증시 약세와 부동산 시장 불안 등으로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채권의 매력도 더 커졌다”고 설명했다.

증권사들이 채권 홈트레이딩시스템(HTS)나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서비스를 확대하는 등 거래 편의성이 향상된 것도 수요투자를 활성화시켰다. 문제는 증권사들이 개인투자자에 채

권을 판매하면서 민평금리나 거래비용, 유의사항 등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개인투자자들이 채권에 투자하면서 거래가격이 적정한지 판단하려면 민간채권평가회사가 신용등급 등에 따라 산정한 금리인 민평금리를 참고할 수 있다. 그러나 증권사들은 매매금리나 매매단가만 안내했다.

거래금액에는 증권사의 수수료, 비용 등이 포함돼 거래비용을 별도로 확인하기도 쉽지 않았다. 투자자가 1억원의 채권을 매수할 경우 실제 부담하는 거래비용은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186만원까지 발생할 수 있다.

장기채에 대해 안정성만 지나치게 강조하는 경우 투자자는 금리상승으로 인한 평가손실을 예상하지 못할 수도 있다. 만기가 긴 채권(10년·30년물 등)은 만기가 짧은 채권(1·3년물 등)에 비해 채권가격이 금리변화에 민감하게 움직인다.

금감원은 채권투자 관련 투자자보호 강화를 위해 금융투자협회와 공동으로 ‘표준투자권유준칙’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금리 변동성 확대 등에 따라 채권 투자수요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개인투자자의 채권 투자현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안상미 기자 smahn1@

DB금융투자, 고객지향 MTS 모드 선택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

‘알파증권’ 모드 출시

DB금융투자는 사용자환경(UI)·사용자경험(UX)을 대폭 개선해 고객지향적인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모드를 선보였다고 3일 밝혔다.

새롭게 출시한 ‘알파증권’ 모드는 기존의 일반·심플 모드와는 달리 국내주식, 해외주식, 채권 시세를 홈 화면에 함께 배치해 주문까지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또한 금리 상승으로 채권에 관심이

높아진 고객 성향에 맞춰 강화된 채권 정보를 제공한다.

채권의 예상수익이나 채권 가이드를 확인할 수 있고, 상품 확인 중 바로 디지털PB에게 투자상담을 신청할 수 있는 기능도 탑재했다.

DB금융투자는 이번 알파증권 모드를 시작으로 내년 1월에는 주식, 채권 등을 매수할 수 있는 금융투자 상품권을 런칭하고, ‘더블’이라는 명칭의 서비스와 혜택이 포함된 화면을 추가 구성할 예정이다.

/원관희 기자

한화투자증권, 연금자산 1兆 기념 이벤트

순입금액 따라 백화점 상품권 증정

한화투자증권은 연금자산 1조원 돌파를 기념해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연금저축과 IRP(개인형퇴직연금)는 연간 1800만원까지 납입 가능하며 최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이 있어 연말정산 때 꼭 챙겨야 하는 필수 상품이다.

이번 이벤트는 오는 31일까지 진행하며 연금저축 순입금액 300만원 이상 시 최대 70만원, IRP 순입금액 3백만원 이상 시 최대 3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증정한다.

/원관희 기자

日 독점 FMM 국산화 성공... 글로벌 최고 식각 회사 '도전'

Q 르포 볼트크리에이션

세계 최초 750ppi 제품 개발
"장점 많은 건식 이온 빔 방식
특허 등록 모두 끝내고 양산"

디스플레이를 제조하는 공정과 유사한 1000클래스(class) 수준의 클린룸에서 일본이 독점하던 OLED FMM(Fine Metal Mask)을 순수 국산 기술로 개발, 양산에 성공한 한국의 강소기업이 있다.

세계에서 최초이자 최고의 건식 식각 기술을 자랑하는 볼트크리에이션이 그 주인공이다.

FMM은 현재 국내 시장만 약 1조원 규모로 알려져 있다.

영어로 에칭(etching)이라고도 불리는 '식각'은 화학약품의 부식작용을 응용한 표면가공 기술로 구리(Cu), 금(Au), 폴리에틸렌 필름(PET), 폴리이미드 필름(PI) 등을 가공, 각종 전자제품 등에 쓰인다.

볼트크리에이션은 최상준 대표가 2015년 설립한 벤처기업으로, 회사는 같은 해 폴리이미드 필름 식각에 성공했다.

"FMM은 그동안 일본의 DNP, TOP PAN 등이 독점을 했다. 한국도 전량을



볼트크리에이션 최상준 대표.

수입할 수 밖에 없었다. 무엇보다 국산화가 절실했다. 이대로 있다가는 중국에도 뒤처질 상황이었다. 그러다 우리가 개발, 양산하는데 성공했다. 시장을 독점하던 일본은 습식 식각인데 우리는 건식 이온 빔을 이용하는 것이 특징이다."

FMM 생산기지인 볼트크리에이션 오산 공장에서 만난 최상준 대표의 설명이다.

볼트크리에이션이 개발한 건식 이온 빔 방식의 식각 공정은 고해상도 구현이 가능하고 부산물 발생도 최소화할 수 있다. 생산 수율도 70~80% 정도로 높다. 또 저온으로 식각을 하기 때문에 열에 의한 재질 변화도 없다.

특히 최 대표는 기술을 개발하면서



경기 오산에 있는 볼트크리에이션 공장 전경.

/김승호 기자

이와 관련해 모든 특허를 내놨다. 시장을 독점하던 일본 등 경쟁자들이 범접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볼트크리에이션은 세계 최초로 750ppi FMM을 개발하는데 성공했다. 해상도의 밀도를 나타내는 ppi(pixels per inch)는 1인치 공간에 몇 개의 구멍이 뚫려 있는가를 의미한다.

최 대표는 "아이폰이 현재 470ppi 수준이다. 이론상론 1200ppi까지 가능한데 우리는 현재 600ppi 수준의 FMM을 생산하고 있다. ppi가 높을 수록 고해상도의 스마트폰이나 디스플레이, 그리고 AR·VR을 구현할 수 있다. 우리가 개발한 고해상도 FMM은 특허에서도 자유롭다. 제조 장비 등 전체 프로세스도 모두 우리가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최 대표는 삼성종합기술원에서 반도체를 연구한 기술자 출신이다. 관련 논문만도 50편이 훌쩍 넘는다. 대한금속학회에서 제1저자로 최우수논문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그러다 자신을 위한 일을 하고 싶어서 스타트업에 뛰어들었다.

"식각은 모든 것의 기본이다. 나를 위해서 일을 하자고 마음을 먹고 겁도 없이 시작했다. 번돈을 투자해 개발만 하다보니 어느새 딱 1년 버틸 돈만 남았더라(웃음). 그러다 포스코, 산업은행 등으로부터 투자를 받기 시작했다. 지금까지 250억원 가량을 외부에서 투자받았다. 그동안 개발만해서 사실상 번돈은 없다(다시 웃음). 하지만 양산을 시작해 납품하기 시작한 FMM은 올해 하반기부터 주력 제품이 되고 있다." 최

대표가 씩스러운 듯 말을 이어갔다. FMM를 개발하다보니 유사 기술을 응용해 사업화할 수 있는 길도 점점 넓어졌다.

다양한 이동 수단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전자파 차폐, 빛길 등에도 유리의 투명도를 유지할 수 있는 V-GLASS, 공기청소기 등에 사용할 수 있는 폴리머 에어필터가 대표적이다.

전자파 차폐 제품은 도심항공교통(UAM), 무인비행기(UAV)와 같은 무인 이동체, 드론, 자율주행차 등 센서가 달린 모빌리티 등에 다양하게 쓰일 수 있다.

최 대표는 자사의 V-GLASS와 일반 유리에 물을 뿌리고 투명도의 차이를 직접 설명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V-GLASS는 전류를 사용하지 않고도 시인성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 전자파 차단 효과도 있다. 이에 따라 자동차 카메라, CCTV, 사이드 미러 등 응용범위가 매우 넓다"고 설명했다.

볼트크리에이션의 V-GLASS는 한국전자기술연구원(KETI)의 시험 결과 오류율이 '제로(0)%'였다. 이는 일반 유리의 오류율(24.57%)에 비해 뛰어나다는 것을 보증하는 수치다.

볼트크리에이션은 이같은 여세를 몰아 올해 프리 IPO를 진행했다. 조만간 증권시장 상장에 모색한다.

/오산(경기)=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중기부, 수탁·위탁 불공정 거래행위 잡는다

정기 실태조사 4일부터 진행 납품대금 미지급 등 전반 조사

중소벤처기업부가 기업 간 수탁·위탁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거래행위를 바로잡기 위한 '2023년도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를 4일부터 실시한다.

3일 중기부에 따르면 수탁·위탁거래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라 제조, 공사, 가공, 수리, 판매, 용역을 본업으로 하는 자가 물품, 부품, 반제품 및 원료 등(물품 등)의 제조, 공사, 가공, 수리, 용역 또는 기술개발(제조)을 다른 중소기업에 맡기고 위탁받은 중소기업이 전문적으로 물품 등을 제조하는 거래를 말한다.

중기부의 올해 조사는 수탁·위탁거래 관계에 있는 기업 1만5000개사(위탁 3000개사, 수탁 1만2000개사)를 대상으로, 올해 상반기(1월~6월)에 이뤄진 수탁·위탁거래의 납품대금 미지급, 약정서 미발급 등 기업 간 불공정거래행위 전반에 대해 이뤄진다.

주요 조사내용은 상생협력법 제21조부터 제2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탁기업의 의무 및 준수사항인 ▲약정서의 발급 ▲납품대금의 지급 ▲납품대금 지급기일 준수 ▲부당한 납품대금 감액 금지 ▲부당한 대금 결정 금지 ▲부당한 기술자료 요구 금지 등이다.

조사는 크게 1단계 위탁기업 거래현황 조사, 2단계 수탁기업 설문조사, 3단

계법 위반 의심기업 현장조사 등 3단계로 진행된다. 조사 결과 상생협력법 위반이 확인된 기업에 대해선 개선요구 등 행정처분을 하게 된다.

중기부 관계자는 "최근 고금리의 여파로 중소기업들의 자금 어려움이 커지는 상황에서 중소기업이 납품대금을 제때 받는 것이 중요한 점을 감안해 위탁기업들이 수탁 중소기업에 납품대금을 제때에 제대로 지급하는지를 중점 조사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중기부는 또 소프트웨어업계에서 관행이라는 이유로 이뤄지던 계약 내용 임의의 변경 등 주요 불공정 거래 등 상생협력법 위반행위를 개선토록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김승호 기자

중소 발전에 힘쓴 '유공자' 추가로 찾는다

2024년 중소기업 유공자 포상

중소기업 유공자를 추가로 찾는다. 중소기업중양회는 중소기업의 발전과 육성에 기여한 공로자를 발굴해 포상하는 '2024년도 중소기업 유공자 포상' 신청·접수 기한을 이달 15일까지 연장한다고 3일 밝혔다.

중소기업 유공자 포상은 771만 중소기업인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전국단위 최대 규모의 포상으로 매년 중소기업주간(5월 셋째주)에 열리는 '대한민국 중소기업인 대회'에서 시상한다.

모범 중소기업인(제조, 유통·서비스), 모범 근로자, 중소기업 육성공로자, 지원우수단체(기관) 4개 부문으로

신청을 받는다. 이 가운데 심사를 통해 산업훈장(금·은·동·철·석탑), 산업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등 정부포장과 기관표창(중소벤처기업부장관, 조달청장 등)을 수여할 예정이다.

포상신청은 중기중앙회 홈페이지 접속 후 '정보마당'→'중앙회 공지' 화면에서 '2024년도 중소기업 유공자 포상 신청 안내' 게시물을 참조해 관련서류를 중기중앙회 포상전담팀 또는 전국 지방 중기청에 제출하면 된다.

또한,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한국벤처협회, 소상공인연합회, 이노비즈협회, 메인비즈협회 등 주요 중소기업단체로부터도 추천받을 계획이다. /김승호 기자

눈꽃 동행축제, 우수기업 100개사 앞장

홍보대사에 '테이' 위촉

중소벤처기업부 산하유통 관련 공공기관들이 4일부터 본격 시작하는 '12월 눈꽃 동행축제'에 힘을 보탠다.

3일 중소기업유통센터에 따르면 눈꽃 동행축제 홍보대사로 가수 테이를 위촉했다.

홍보대사로 활동할 가수 테이는 2004년 데뷔한 이후 뛰어난 보컬 실력과 뮤지컬, 예능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으로 대중들의 큰 사랑을 받아왔다. 특히,

2018년부터 직접 수제 햄버거 가게를 창업해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으로, 이번 홍보대사 선정에 큰 의미가 있다.

테이는 홍보대사로서의 첫 활동으로 공식 홍보영상에 출연해 '12월 눈꽃 동행축제'를 응원한다.

이런 가운데 이번 동행축제에는 200여개의 주요 온·오프라인 유통채널, 전통시장, 중소·소상공인을 비롯한 모든 경제주체가 참여한다.

특히, 참여 중소·소상공인 중 국민투표를 통해 엄선한 100개 대표 기업에 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오른쪽)이 '12월 눈꽃 동행축제' 홍보대사로 위촉된 가수 테이와 홍보 영상을 촬영하고 있다. /중소기업유통센터

해선 동행축제 기간동안 라이브커머스, 온라인기획전, 개막식 현장 제품 전시·판매 및 제품 홍보를 지원한다. 이 중 70개 기업은 동행축제 기간 판매한 수익금의 일부를 기부하는 등 상생·나눔활동에도 동참할 계획이다. /김승호 기자

현대L&C, 내년 인테리어 핵심 트렌드 제시

'인트렌드 2024·2025' 개최

현대L&C가 2024년 인테리어 핵심 트렌드를 제시했다.

현대백화점그룹 계열 종합건자재기업 현대L&C는 인테리어 트렌드 세미나 '인트렌드(Intrend) 2024·2025'에서 2024년 인테리어 핵심 트렌드로 자기만의 세계관을 설정하고 깊숙이 몰입하는 '하이코어(HYPECORE)'를 제시했다고 3일 밝혔다.

인트렌드 세미나는 현대L&C가 지

난 2010년을 시작으로 매년 다음해 유행이 예상되는 인테리어 트렌드를 소개하는 행사로, 최신 라이프스타일과 디자인 트렌드 정보를 공유한다. 올해 행사에는 건축 및 인테리어 업계 전문가·학계 관계자 등 1000여 명이 참가했다.

14화째를 맞은 이번 인트렌드 세미나는 ▲거시 트렌드 ▲공간별 건자재 트렌드 ▲제품군별 건자재 트렌드를 주제로 세분화해 총 3부로 진행했다.

/김승호 기자

첨단클러스터 내 외국인투자, 최대 50%까지 현금지원

산업부, 제113회 외국인투자자

현금지원제도운영요령 개정안과 외국인투자지역운영지침 등 의결

정부가 첨단산업 클러스터 내 외국인 투자에 대해 최대 50%까지 현금 지원을 하고,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업종을 확대하는 등 첨단산업 분야 외국인 투자 지원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제113회 외국인투자위원회(위원장 산업부 장관)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현금 지원제도운영요령 개정안', '외국인투자지역운영지침 개정안' 등을 심의·의결하고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현금지원제도 운영요령' 개정으로 첨단산업 분야 외투에 대한 지원을 확대했다. 첨단산업으로의 전환 과정에서 고용불안 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공장 신·증설이 없더라도 기존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엔 기존 공장 내 설비교체를 위한 투자도 현금지원이 가능하도록 세부규정을 마련했다.

아울러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를 포함한 첨단산업 클러스터 내 외투에 대해서는 투자금액의 최대 50%까지 현금지원 가능한도를 상향했다. 또 신속한 행정절차 진행을 통해 외국인 투자가의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도록 현금지원 신청서의 처리기한을 60일로 명시했다.

'외국인투자지역운영지침' 개정을 통해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업종을 확대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철폐해 입주 외투기업이 안정적이고 자유롭게 조업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서비스형 외투지역 지정가능 업종에 글로벌기업 지역본부를 추가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후속 투자를 유도하고, 외투기업의 지속적인 증액 투자를 유도할 수 있도록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사용한 경우도 외투지역내 이전 시 필요한 실적에 포함되도록 했다.

아울러, 외투기업의 무탄소에너지 사용 장려를 위해 송배전 설비 투자 등을 유발하지 않는 '자가소비 목적'의 태양광설비 설치시에는 면적 제한을 철폐하고, 외투기업이 장기간 안정적으로 조업할 수 있도록 기존 50년 한도 외투단지 임대기간 제한 규정을 삭제했다. 개정안 세부내용은 4일부터 산업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산업부는 "글로벌 인플레이션 등으로 불확실성이 혼재된 상황에서도 첨단산업 분야 외국인투자를 더욱 확대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지속 강화하고 킬러규제 혁파 등을 통해 기업 투자 환경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가맹본부, 거래조건 변경 시 사전협의 필요”

공정위, 가맹사업법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가맹본부는 필수품목을 늘리는 등 거래조건을 가맹점에 불리하게 바꿀 때, 정해진 절차에 따라 가맹점주와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4일부터 내달 15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3일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9월 당정협의를 통해 이같은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필수품목은 가맹본부가 브랜드의 동일성 유지 등을 위해 반드시 본부가 지정한 사업자로부터만 구매하도록 강제된 품목을 말한다.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너무 많은 품목을 필수품목으로 지정하고 일방적으로 가격을 높이는 것이 가맹점주들을 어렵게 하는 주된 원인으로 보고 있다. 개정안은 이러한 거래관행 개선을 위해 필수품목의 수를 늘리거나, 품목의 품질 또는 수량을 낮추거나, 기존에 정

한 가격산정방식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등 가맹점주에게 거래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가맹점주와 협의를 거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그 협의절차를 계약서 필수 기재사항에 포함해 사전에 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가맹본부가 이를 위반해 임의로 필수품목을 확대하거나 불합리하게 가격을 인상하는 경우 시정조치, 과징금 처분이 가능하게 해 가맹본부의 필수품목 감질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겠다는 방침이다.

개정안에는 지난 6월 가맹사업법 개정으로 도입된 분쟁조정 사건의 수소법원 소송중지 제도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통지 절차 등을 마련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공정위는 이번 시행령 개정과 함께 필수품목 항목, 공급가격 산정방식을 계약서에 기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도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세종=한용수 기자

“2050년까지 원전 발전용량 3배 확대”

‘넷제로 뉴클리어 이니셔티브’ 채택
韓·美 등 포함, 22개국 동참 약속
산업부, 원전 파트너 경쟁력 강조

우리나라와 미국 등 22개국이 전 세계 원전 발전용량을 2050년까지 3배로 확대하는데 동참하기로 약속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서 한국을 포함해 미국, 프랑스, 영국, UAE, 스웨덴 등 22개국이 '넷제로 뉴클리어 이니셔티브(NetZero Nuclear Initiative)' 지지 선언문을 채택했다고 3일 밝혔다.

넷제로 뉴클리어 이니셔티브는 당면한 기후 위기 해결을 위해 ▲원전을 청정에너지로 인정하고 ▲2050년까지 전 세계 원전 용량을 3배로 확대하기 위한 국가 간 협력을 약속하며 ▲이를 위한 금융, 재정, 기술개발, 공급망 확보 등의 국가적 지원을 촉구하는 글로벌 기후 아젠다이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강경성 산업2차관은 지지 선언을 통해 원전 파트너로



고리원전 3호기.

/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자력본부

서의 한국의 경쟁력을 강조했다. 강 차관은 "해외원전 프로젝트 참여를 통해 한국의 안전한 설계, 시공 및 운영 등 원전 산업 전 주기에 걸친 기술과 경험을 전 세계와 공유할 것"이라며 "한국은 1972년 첫 원전 건설 시작 이래, 36개의 원전을 건설하고,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기반으로 반도체, 이차전지, 조선 등의 산업을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린 바 있다"고 말했다.

이번 지지 선언은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원전의 역할이 핵심적이라는 글로벌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실제로 이번 행사에는 프랑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 미국 존 케리 기후변화 특사, 스웨덴 올프 크리스테르손 총리 등 국가 정상급 인사가 참석해, 기후 위기 대응 수단으로서 높아진 원전의 위상과 국제적 관심을 재확인 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환경부, 美 실리콘밸리에 ‘녹색기술’ 소개

韓-美 녹색기술 투자설명회

정부가 3일 한국형 녹색기술의 미국 실리콘밸리 진출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지난 30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 산타클라라에 위치한 세계적인 혁신기업 육성기관인 플러그앤플레이 기술센터(Plug&Play Tech Center)에서 '한-미 녹색기술 투자설명회'를 개최했다.

환경부는 "이번 행사는 미국 실리콘밸리의 투자자들에게 우리나라 녹색기술을 처음으로 소개하는 자리"라며 "우리나라 녹색기술의 우수성을 기반으로 미국 시장 진출의 창구를 마련했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날 투자설명회에는 북미지역 최대 관심 사항인 기후위기 대응 및 노후 설비 개선 등을 겨냥해 △탄소저감 제품 △폐자원 고부가가치화 기술 △수소·전기 차량 소재·부품·장비 등의 우수기술을 가진 기업 10개사가 참여했다.

이들 기업의 기술 및 제품의 상세 내용은 투자자 및 구매처(바이어) 대상 정보 제공을 위해 운영 중인 누리집(www.K-Greenday.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뉴아세아(환경배관 이음 설비)와 비티이(다목적 수소 충전설비), 어썬레이(차세대 X-선 실내공기 정화), 에바(전기차 충전설비) 등이다.

투자설명회에 참석한 케빈 박(Kevin Park) 산타클라라시 부시장은 "한국과 미국 실리콘밸리 간의 녹색기술 간 협력을 축하하며 역동적인 녹색 전환을 이뤄가는 한국기업에 대한 투자를 통해 한국과 실리콘밸리가 상생하는 기회가 확대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우수환경산업체 및 녹색산업 유망기업 등으로 지정된 우수 녹색기업을 대상으로 지난 7월 북미 시장 진출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했다. 지난 9월에는 국내 투자자를 초빙한 영어모의 투자설명회를 실시해 이번 참가 기업을 선정할 바 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고용부, ‘안전보건 상생협력’ 참여사 모집

산업안전보건공과 지원

고용노동부와 산업안전보건공단이 3일 내년도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에 참여할 대기업 및 중소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신청기간은 이달 4일~21일이다.

“안전보건 상생협력 사업은 중소기업의 안전보건 역량을 높이기 위해 중소기업의 위험성평가 및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을 지원하는 제도”라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에 컨설팅과 교육, 캠페인, 보호구 등을 지원·투자한다. 정부는 기술·재정지원을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노력을 뒷받침한다. 올해엔 대기업(모기업) 333개소와 사내·외 협력업체(지역 중소기업 포함) 3882개소가 참여해 다양한 활동을 실시했다.

참여를 원하는 100인 이상 모기업(건설업 제외)은 다수의 협력업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산업안전보건공단 광역본부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전

자우편·우편 또는 방문 신청 모두 가능하다. 협력업체가 50인 미만이거나 사외협력업체 또는 지역 중소기업이 다수인 경우 선정 시 우대한다.

류경희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중대재해 감축을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안전보건 역량 향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인력 및 투자 여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이어 “대기업이 상생협력 활동을 통해 안전보건 지식·기술을 적극 투자하고, 중소기업은 위험성평가 및 안전보건관리체계를 효과적으로 이행하는 기회로 활용하여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환경부, 車 배출가스·공회전 등 집중단속

전국 17개 주요 시·도 650여 지점 대상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이 3일 운행차 배출가스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전국 17개 주요 시·도 650여 지점이 대상이다. 오늘부터 내년 3월 22일까지로 예정돼 있다.

환경부는 이번 ‘집중단속’은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기간에 맞춰 추진된다”며 “초미세먼지(PM-2.5)

배출 비중이 높은 경유차량을 중심으로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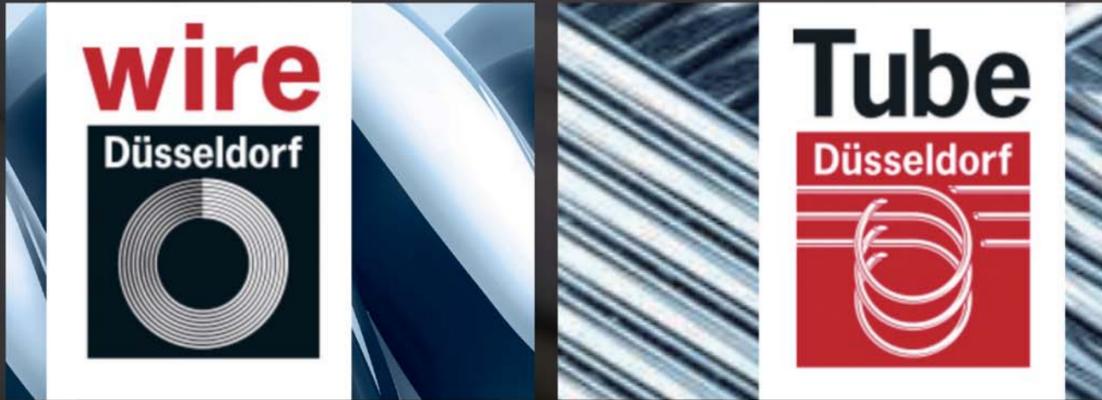
차고지(시내버스, 시외버스)와 학원가, 물류센터 등 차량 밀집 지역에서 수시로 점검한다. 차량을 공회전하는 행위도 단속 대상이다. 모든 차량 운전자는 이번 단속에 따라야 하며, 단속에 응하지 않거나 기피 또는 방해할 경우 최대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세종=김연세 기자

독일 뒤셀도르프

Wire & Tube 2024

참관단 모집



| 전시분야 |

와이어, 와이어 생산, 와이어 가공, 케이블, 케이블 생산, 케이블 기술, 기계, 측정 기술, 테스트 기술, 제어계측 기술, 재료 기술, 공구류, 튜브, 튜브 가공기술, 튜즈 제조 기술, 파이프 작업, 용접 기술, 공구류, 기계류, 측정 기술, 제어계측 기술

주요일정

- 4월 14일(일) ▶ 인천국제공항 출발
프랑크푸르트 공항 도착
- 4월 15일(월) ▶ 독일 Wire&Tube 2024 참관
- 4월 16일(화) ▶ 독일 Wire&Tube 2024 참관
- 4월 17일(수) ▶ 독일 Wire&Tube 2024 참관
- 4월 18일(목) ▶ 독일 Wire&Tube 2024 참관
- 4월 19일(금) ▶ 프랑크푸르트 공항 이동
프랑크푸르트 출발
- 4월 20일(토) ▶ 인천국제공항 도착

* 상기 일정은 현지 업체의 상황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모집 개요 및 참가대상

1. 일 정 : 2024. 04. 14(일) ~ 2024. 04. 20(토) 5박 7일
2. 모집인원 : 20명 (선착순 마감)
3. 접수기간 : 2023. 11. 06(월) ~ 2023. 11. 30(목)
4. 참가대상 : ① 강관·선재·파스너·스프링 제조 및 유통관련 임직원
② 철강 연구소 및 협회·조합관련 인사
③ 화학산업·난방·석유가스·용수 공급등 관련 기업인
④ 향후 관련 업계에 진출하고 자 하는 분

참가비용

3,200,000원 (VAT 별도)

- 왕복 항공권, 호텔, 전시회 입장료
(대한항공 일반석, 뒤셀도르프 시내 호텔 2인1실 기준)

* 항공 및 호텔 변경시 별도 문의

경북도, 77명 주한외국대사 초청... “지방외교 관심 커져”

도지사협의회장 이철우 경북지사 “간담회, 2010년 22명으로 시작 국제교류 사업 네트워크 중요”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인 이철우 경북지사가 지난 1일 서울신라호텔에서 주한외국공관 대사 등을 초청해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14회째로, 73개국 77명의 사상 최대의 주한외국대사들이 참가했다.

이철우지사는 환영사에서 “2010년 22명으로 시작된 행사가 14년이 지난 지금 70여 명의 대사님들을 모시는 의미 있는 연례행사로 성장한 것은 지방외교에 대한 대사들의 관심과 지원을 대변한다”며 감사인사를 전하고 “지자체가 추진하는 국제교류 사업이 성공적으로 개최되기 위해서는 주한외국공관의 네트워크가 매우 중요하다. 내년에 각 지자체에서 열리는 다양한 국제행사에 주한외국공관의 각



전국시도지사협의회가 지난 1일 서울신라호텔에서 주한외국공관 대사 등을 초청해 간담회를 가진 후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경북도

별한 관심과 함께 많은 홍보를 해 달라”고 부탁했다.

또 “지난 5월 주한외교단 임원단과 지방외교를 지원하는 MOU 체결과 지난 9월 ‘제1회 한-중앙아시아 지방협력 원탁회의’ 등 다양한 행사로 해외사무소가 없는 지역에 대한 해외교류 추진이 주한외국공관의 지원과 협력으로 가능하게 됐다”면서 “협의회와 주한외국공관이 협력을 확대하고, 중앙외교의 보완재 역할을 하는

마중물이 되자”고 강조했다.

주한외국공관장을 역임하고 있는 빅토르 분구 주한가봉대사는 축사에서 협의회와 주한외교단이 지난 5월에 체결한 협력협약을 언급하며, “국가 간 뿐만 아니라 지방정부 차원의 외교활동에도 지원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경북도립국악단의 민요 연가와 사물놀이로 시작한 이날 간담회는 올해 주한외국공관과 협력한 사업들을 사

영영상으로 선보이고, 내년에 각 지자체 주관으로 열리는 국제행사를 홍보하는 등 지방의 국제화 활동을 효과적으로 알리는 홍보의 장으로 만들어 졌다.

내년에 대구시는 ‘2024 대한민국 미래도발리티엑스포’, 강원도는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군산시는 ‘군산수제맥주 페스티벌 & 새만금 전국마라톤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경북=장영우 기자 ycyw57@metroseoul.co.kr

지역 이모저모

신안군 14개 읍면서 ‘사랑의 김장 나누기’

신안군은 지난 11월 23일 부터 12월 7일까지 각 14개 읍면에서 ‘2023 사랑의 김장 나누기 행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신안군 여성단체협의회(회장 안미영) 주관으로 진행되는 이번 나눔 활동은 지역의 소외된 이웃에게 겨울철 김장 김치를 전달하고, 마음을 함께 나누는 공동체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김장 주요 재료인 배추, 소금, 젓갈 등을 우리 지역 농산물로 사용한 김장 김치 2만 9천 포기를 4천8백여 세대의 저소득 홀몸노인, 장애인 가정, 한부모가정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신안(전남)=황세훈 기자 pinksea97@

광주시 방림근린공원 생태계 복원 나서

광주광역시시는 12월부터 남구 방림근린공원 생태계복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 사업은 지난 11월 도심 속 소생태계 복원을 위한 ‘환경부 생태계 복원사업’ 공모에 선정돼 시행한다.

생태계복원사업은 대규모 공사 때 자연환경 또는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고, 생물다양성의 감소를 초래하는 개발사업자가 납부한 생태계보전부담금을 재원으로 생태계 보전 및 복원을 유도하는 사업이다.

광주시는 12월 말까지 국비 4억6000만원을 투입해 방림근린공원 일대 1만2387㎡에 대한 복원사업을 실시한다. /광주=양수영 기자

순천시 순천만가든마켓, 온라인몰 열어

순천시(시장 노관규) 출자기관인 농업회사법인 순천만가든마켓 주식회사(대표 임승규)가 12월 1일부터 온라인 쇼핑몰을 정식 오픈 운영했다.

온라인 쇼핑몰은 전국 최대의 정원수 생산지인 순천시의 정원문화산업 발전과 정원 관련 상품·서비스 확장을 위해 마련됐다.

순천시는 온라인 판매 역력이 없는 지역 정원수 생산 농가 및 소상공인의 온라인 판로 개척과 오프라인 매장과 시너지 효과를 통해 매출 증대를 기대하고 있다. /순천(전남)=전정신 기자 spirit@

울산시 특수거래분야 법집행 ‘우수’

울산시가 공정거래위원회가 주관한 특수거래분야 법집행 실적 우수지자체로 선정됐다. ‘특수거래’란, 방문판매업, 후원방문판매업, 전자상거래업, 전화권유판매업 등을 아울러 지칭하는 용어로 특정 거래 방식을 띠는 업종을 말한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1일 서울 서초구 소재 엘타워에서 열린 제28회 소비자의 날 행사에서 공정거래위원장 표창을 수상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매년 특수거래 분야의 소비자 권익 보호와 시장 신뢰도 제고를 위해 전국 17개 광역지자체를 대상으로 우수한 지자체를 선정하고 있다. /울산=장병호 기자

항공우주산업 등 712억 투자 잇따라 순천·광양, 162명 일자리 창출 전망

순천, 누리호 조립·제조설비 공장 광양, 철구조물 제작시설 신설

전라남도는 광양경제자유구역청과 순천시, 광양시와 협력해 한화에어로스페이스(주), 아시아티앤씨 주식회사, 케이스틸(주), 거인이앤씨 주식회사와 712억 원 규모의 서면 투자협약을 했다고 밝혔다.

이번 투자협약으로 기업 유치가 마무리되면 순천과 광양에 162명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전망이다.

투자협약에 따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주)는 순천 울촌제1산업단지에서 508억 원을 투자해 민간 우주산업 기반시설(인프라) 조성을 위한 발사체 생산시설 중 하나로 우주발사체 누리호의 1, 2, 3단 조립을 수행할 공장을 신설한다.

아시아티앤씨 주식회사는 순천 해룡산업단지에서 90억 원을 투자해 금속



한화에어로스페이스(주) 단조립장 예시 사진 /전남도

용기, 압력용기, 열교환기 등 제조설비를 제작하는 공장을 신설한다.

케이스틸(주)은 광양 황금산업단지에서 59억 원을 투자해 배관 작업과 기계 설치를 위한 철구조물을 제작하는 시설 등을 신설한다.

거인이앤씨 주식회사도 광양 익신일반산업단지에서 55억 원을 투자해 대기오염을 예방하기 위한 설비를 생산하는 공장을 짓는다.

/전남=양수영 기자 ysn6313@

포항시, ‘포스텍 연구중심의대’ 서명운동

행정복지센터·거점지역 중심서 진행

포항지역 최대 현안인 ‘포스텍 연구중심의대’ 설립 촉구를 위해 시민들이 힘이 한곳으로 모아지고 있다.

포항시는 1일 의대 정원 확대와 연구중심의대 신설을 정부에 촉구하기 위해서 본격적인 서명운동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지난 11월 27일 지역의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1천여 명의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포스텍 연구중심의대 설립 촉구 범시민 결의대회’에서 이강덕 시장은 첫 서명으로 서명 운동의 시작을 알렸다. 이후 29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서명 부스를 설치했고, 영일대해수욕장·죽도시장 및 스페이스워크 등 유동인구가 많은 주요 거점지역을 중심으로 40여 개의 서명 부스를 설치해 활발한 서명 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의료계의 의대정원 확대 반발



‘포스텍 연구중심의대’ 설립 촉구를 위해 의료기관 내에 설치된 서명 부스.

에도 불구하고 지역의료 개선을 위한 병원의 협조로 포항세명기독병원 내 서명 부스를 설치해 서명 운동을 진행하고 있어 ‘포스텍 연구중심의대’ 설립을 향한 시민들의 열원과 의지를 의료계도 함께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강덕 시장은 “서명 운동을 통해 시민의 간절한 의지를 총결집해 지역을 넘어 국가 균형발전을 선도할 포스텍 연구중심의대를 반드시 설립하겠다”라고 말했다.

/포항(경북)=이상호 기자 leesh0412@

경북도-대구銀, 수출기업 금융지원 강화

수출마케팅·창업·금리감면 지원

경북도와 대구은행이 수출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한다.

경북도는 경북수출기업협회, 경북도경제진흥원, 경북테크노파크, DG B대구은행과 함께 지난 1일 수출기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경북수출기업협회는 2023년 기준 회원사가 1083개사로 해외시장 개척과 수출 마케팅, 해외시장 정보 제공 등으로 회원 회사들의 수출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협약에서 경북도경제진흥원

은 기업의 수출마케팅 등 도내기업 수출 경쟁력 강화에 나서고 경북테크노파크는 선도벤처기업 육성과 창업지원 등을 강화한다.

특히 대구은행은 중견·중소기업 가운데 최근 1년 이내 수출실적이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신용등급, 담보비율, 수출실적에 따라 최대 1.70%p의 금리 감면을 지원한다.

또 신용보증기금 보증료 발급 때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수출신용보증상품 가입고객들에게 1년간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최대 2회까지 보증료의 0.2% 이내를 지원한다. /경북=장영우 기자

부산시, 108억 모금 목표 캠페인 시작

‘희망2024나눔캠페인’ 출범식

부산시가 1일 송상현 광장에서 희망 2024나눔캠페인 출범식을 개최했다.

‘희망2024나눔캠페인’은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두 달간 ‘기부로 나를 가치있게, 기부로 부산을 가치있게’라는 슬로건과 함께 108억6천만 원 모금을 목표로 진행되는 이웃돕기 캠페인이다.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최금식)가 주최하는 이번 출범식에는 부산시장을 비롯해 시의회 의장, 부산시교육감, 언론사 간부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회 ▲축사 ▲D

SR(주) 기부금 전달 ▲부산은행 ‘손에 잡히는 기부 플랫폼’ 소개 ▲출범선포(온도탑점등) 및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출범식에는 박형준 부산시장과 안성민 부산시의회의장을 비롯해 하은수 부산시 교육감, 김영욱 부산진구청장, 양홍선 KBS부산방송총국장, 이오상 KNN사장, 강남훈 국제신문사장, 방성빈 BNK부산은행장 등이 참석했다.

특히, 캠페인 출범식과 함께 설치·운영될 ‘사랑의 온도탑’은 따뜻한 온정을 나타내는 상징물로, 내년 1월 31일까지 송상현 광장에서 만나볼 수 있다. /부산=장병호 기자 metrobusan1@

알리, 내년 韓 물류창고 구축 전망 국내 e커머스업계 긴장감 최고조

최저가 전략에 배송 속도전
1년새 앱 사용자 2배 가량 증가
업계 “1위 쿠팡 위협할 수도”

국내 e커머스 시장은 쿠팡이 독보적으로 1위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 알리바바그룹의 산하 온라인 직구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이하 알리)’가 최저가를 내세우며 국내시장에 돌풍을 일으키고 있어 업계가 주목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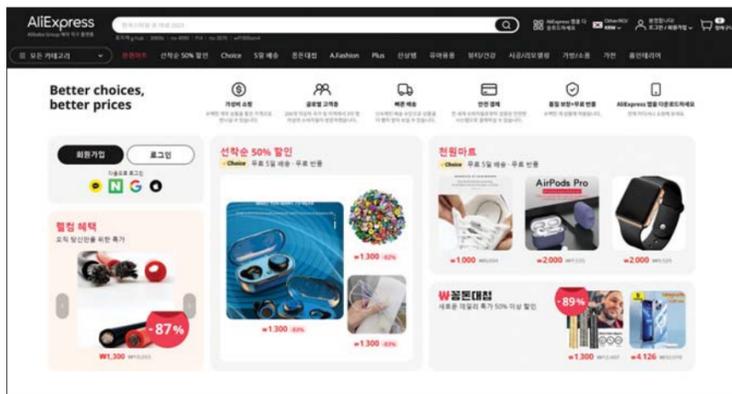
특히 알리는 최저가뿐만 아니라 배송에도 속도전을 낼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내 e커머스 업계가 긴장하고 있는 분위기다.

3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알리가 이르면 내년 한국에 물류창고를 구축할 것으로 전해지면서 국내 유통 시장 점유율이 알리로 기울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물류창고까지 구축하게 되면 현재 알리가 전략으로 내세우고 있는 ‘최저가’에 배송 ‘속도전’까지 더해지면서 성장에 가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지난 2018년 한국시장에 진출한 알리는 지난해 11월 한국 전용 고객센터를 열고 마동석을 홍보모델로 발탁하는 등 공격적인 마케팅을 이어왔다.

이에 알리는 CJ대한통운에서 제품들의 배송 기간을 최대 3일 안으로 줄일 수 있게 됐다. 뿐만 아니라 무료배송, 무료반품 서비스까지 접목하면서



알리익스프레스 홈페이지 캡처

/알리익스프레스

경쟁력을 올리고 있다. 일각에선 이런 알리의 공격적인 마케팅이 쿠팡을 견제하면서 더욱 속력을 내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쿠팡의 사업모델과 비슷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또 다른 일각에선 알리가 한국에 물류센터를 구축한다 해도 하청업체들과 협력해 배송하는 시스템으로 운영할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는 가운데, 배송원을 고용, 직접 운영하는 쿠팡과는 다른 형태의 배송 서비스가 될 것이라는 쪽으로 무게가 실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상품이 쿠팡보다 ‘최저가’라는 점과, 중국에서 바로 상품을 생산해 판매한다는 점이 국내 어느 e커머스 업체보다 가격경쟁력적인 측면에서 우위에 있다는 점에는 큰 이견이 없다.

실제로도 알리의 성장속도는 눈에 띈다. 알리익스프레스 앱의 한국

인 사용자는 올해 10월 기준 613만 명으로 지난해 대비 (297만명) 약 2배 늘었다. 이는 G마켓 이용자(582만명)에 비교하면 괄목할 만한 성장 속도다.

이에 업계 전문가는 쿠팡도 대부분의 제품이 중국에서 생산되는 만큼 알리의 이런 성장을 안일하게 대처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앞으로 국내 내수 시장에서 알리가 쿠팡을 제치고 업계 1위를 기록할 수 있을지 장담하지 못하지만 국내 경기가 어렵고 물가 상승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앞날도 가늠하기 어렵다. 또한 시시때때로 소비자들의 트렌드도 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저가, 빠른배송의 형태는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업계 내 알리의 미래는 밝은 것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최빛나 기자 vitna@metroseoul.co.kr

이마트 “2030년까지 탄소 32.8% 감축”

넷제로 보고서 2023
2050 탄소중립 전략·로드맵 수립



이마트 2023넷제로 보고서 표지 /이마트

이마트가 2050년까지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탄소중립을 추진하며 글로벌 기후 위기 대응에 동참한다.

이마트는 지속가능한 환경경영을 위한 2050 탄소중립전략과 로드맵을 수립하고, ‘넷제로 보고서 2023’을 발간했다고 3일 밝혔다.

이마트는 2018년 대비 탄소배출량을 2030년까지 32.8% 감축하는 중간목표를 세웠다. 나아가 2050년까지 6대 온실가스 배출량을 모두 ‘0’으로 만들겠다는 넷제로(Net Zero)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 계획과 성과를 보고서에 담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마트는 온실가스 감축사업 테마를 ▲운영효율 개선 ▲설비 교체 ▲탄소상쇄사업 ▲신재생 에너지 투자 등 4가지로 나누고 테마별 탄소

감축에 소요되는 투자·운영·에너지절감 비용을 고려해 한계감축비용을 산정했다. 이어 탄소배출권 시장가격을 고려한 내부 탄소가격을 설정, 한계감축비용과 비교해 최적화된 감축 로드맵을 마련했다.

이마트는 직접적으로 배출한 온실가스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 배출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정량 데이터를 관리해 미래 배출량에 대한 최적의 감축 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다.

/최빛나 기자

SSG닷컴 “‘신선직송관’ 구경하세요”

전국 각지 검증 협력사 상품 입점

SSG닷컴이 우수 협력사의 신선식품을 한 곳에 모아 판매하는 ‘신선직송관’을 오픈한다고 3일 밝혔다.

SSG닷컴의 ‘신선직송관’은 전국 각지의 최고급, 초신선 상품을 취급하는 검증된 협력사만 입점할 수 있다. 당일 어획 활어, 새벽시장 경매 과일 등 유명산지에서 직접 받아보는 신선상품, 빠르게 받아보는 오늘출발 상품, 품목별 바이어가 엄선한 신선식품, 고객 후기로 입증된 인기상품, 특가·행사 상품 등 속성별로 카테고리를 분류해 고객이 편리하게 직관적으로 둘러볼 수 있도록 쇼핑 환경을 구축했다.

이와 함께 SSG닷컴은 자체 신선식품에 적용중인 ‘신선보장제도’에 이어 ‘신선직송관’에 입점한 협력사 상품품질을 보장하는 ‘품질보장제도’를 새로 도입한다. 고객이 신선하지 않은 상품을 받았을 경우 고객센터 통한 접수 과정 없이 쓱닷컴 앱에 상품 촬영사진을 등록하는 방식으로 간편하게 환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오는 4일부터 17일까지 ‘신선직송관’ 오픈 기념 행사를 최대 60% 할인된 가격에 진행한다. 쓱닷컴 단독 상품으로 선보이는 ‘구미우’ 1++등급(NO.9) 한우 등심특수부위 모듬 구이를 비롯해 ‘맛젤’ 해남 꿀고구마, 햇 부사 사과, 제주 고당도 한라봉 등이다.

/최빛나 기자

뷰티업계, ‘K-인플루언서’ 육성 팔 걷어

LG생건 라이브 크리에이터 모집
아모레퍼시픽 ‘A마스터’ 서류접수

뷰티 업계가 ‘K-인플루언서’를 직접 발굴함으로써 브랜드와 소비자 간의 소통을 강화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모색하고 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LG생활건강은 오는 20일까지 ‘내추럴 뷰티 라이브 크리에이터 6기’ 참가자를 모집한다.

LG생활건강은 앞서 지난 2018년부터 현재까지 ‘내추럴 뷰티 라이브 크리에이터’ 과정을 통해 총 160여 명의 뷰티 인플루언서를 배출한 바 있다. 이들은 K뷰티 인플루언서로서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에서 왕성하게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모집 인원은 총 36명이다. LG생활건강은 오는 2024년 1월 15일 발대식을 열고 평일 주2회 강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무엇보다 ‘K-인플루언서’ 육성을 위해 LG생활건강은 실제 방송과 유사한 실습을 포함한 전문 쇼호스트 교육을 전액 무료로 제공한다. 이와 관련 미미 언니, 리코 등 업계 최고의 스타 쇼호스트들의 수업을 마련했다.

또 수강생 개개인의 실력을 고려한



‘에스트라’는 오는 7일까지 ‘A마스터 3기’ 모집한다. /아모레퍼시픽

개별 멘토링, 주제별 과제 수행 등도 진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선발된 우수 수강생에게는 LG생활건강 라이브커머스 방송에 동반 출연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아울러 LG생활건강은 ‘내추럴 뷰티 라이브 크리에이터 6기’를 환경 전문 비영리단체인 환경재단과 함께 운영해 친환경 뷰티 교육도 강화할 방침이다.

생활뷰티기업 애경산업도 오는 18일까지 ‘AK LOVER 뷰티·라이프 클럽’ 참가자를 모집한다. SNS 운영자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

‘AK LOVER 뷰티·라이프 클럽’에 발탁된 뷰티 크리에이터는 애경산업 제품을 체험하고 자신이 운영하는 SNS에서 제품 홍보 활동과 마케팅 활동

등을 펼치게 된다. 모집 분야는 숏폼 팀, 블로그팀, 인스타그램 등이 있다. 활동기간은 오는 2024년 1월부터 5월까지다.

애경산업 관계자는 “AK LOVER 뷰티·라이프 클럽을 통해 애경산업과 뷰티 크리에이터들은 진정성 있는 소통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아모레퍼시픽의 더마 화장품 브랜드 ‘에스트라’는 오는 7일까지 국내 대학생을 대상으로 ‘A마스터 3기’ 모집을 위한 서류접수를 진행한다. 이후 오는 21일과 22일에 면접 전형을 거쳐 오는 29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A마스터’로 선발되면 오는 2024년 1월부터 약 8주의 활동 기간 동안 더마 화장품 관련 콘텐츠를 제작하게 된다. 에스트라에 따르면 A마스터 1기와 2기의 참가자들은 약 1200여 건의 콘텐츠를 제작했다.

향후 활동 우수자는 에스트라 마케팅에도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에스트라 관계자는 “이번 3기 참가자들과도 참신하고 재기발랄한 콘텐츠를 다양하게 만들어 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mlee236@

유통가 신제품&이벤트

커피앳웍스, ‘화이트 홀리데이 블렌드’ 출시

브루드 커피, 드립백, 원두 3종

SPC가운영하는스페셜티커피브랜드 커피앳웍스가 ‘화이트 홀리데이 블렌드’를 출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에 선보이는 ‘화이트 홀리데이 블렌드’는 케냐, 파나마, 콜롬비아 등

다양한 지역에서 생산된 커피로, 잘 익은 자몽을 한 입 베어 문 듯한 풍부한 과즙과 씹싸름한 카카오닙스의 향미, 헤이즐넛의 고소함을 극대화했다.

신제품은 커피앳웍스 전매장에서 ▲브루드 커피 ▲드립백 ▲원두로 12월 말까지 만나볼 수 있다.

/신원선 기자

던킨 ‘던킨 콤보’ 혜택 확대

SPC 비알코리아가 운영하는 던킨이 대표 제품인 커피와 도넛을 함께 즐기는 커피&도넛 ‘던킨 콤보’ 프로모션 혜택을 확대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프로모션은 던킨 커피와 도넛을 함께 구매하면 할인된 가격에 제공하는 행사로 기존 해피앱 바코드 스캔 시에만 제공하던 혜택을 별도의 조건 없이 구매하는 모든 고객에게 확대 시행한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파파존스 마마치킨 ‘치맥’ 할인 혜택

한국파파존스의 자체 치킨 브랜드 ‘마마치킨’이 연말을 맞아 특별한 혜택으로 채운 12월 이벤트를 마련했다.

마마치킨은 12월 한 달간 매장을 방문해 치킨 메뉴와 함께 맥주 주문 시 인기 맥주 3종에 최대 3000원의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이와 함께 치킨 메뉴 포장 고객에게는 3000원의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신원선 기자

아침햇살 마시고, 서울 핫도그 먹고... 베트남 홀린 K-푸드

오리온 베트남 올 영업익 4.6%↑
대상덕비엣 인스턴트 소시지 등 호평
웅진식품 첫 수출 대비 10배 올라

베트남의 한류 콘텐츠에 대한 관심과 호감이 한국 식품으로 이어지고 있다. 베트남은 1억명에 육박하는 인구와 높은 경제 성장률을 바탕으로 '포스트 차이나'로 통하고 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베트남은 향후 10년 내 중산층 소비자 계층이 3600만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전체 인구 중 중산층 소비자가 계층이 2000년에는 10% 미만이었으나 지난해 기준 40%까지 증가했으며, 오는 2030년에는 75%에 다다를 전망이다. 여기에 인구 중 절반가량이 40대 이하로 소비능력 성장세가 더욱 기대되는 상황이다.

오리온은 베트남에서 사랑받는 기업 중 하나다. 오리온 베트남은 올해 3분기 매출액 1176억원과 영업이익 219억원을 달성했다. 전년 동기과 비교하면 매출은 4%, 영업이익은 4.6% 늘어났다. 환율 효과에 따라 회계 수치 상으로 해외 성장이 둔화된 것처럼 보이나 실제로는 해외 판매가 크게 부진하지 않으며 향후 현지 생산 라인 증설 등을 통해 해외 성장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오리온은 베트남에서 경쟁사 대비 우월한 제품 경쟁력을 바탕으로 젤리와 쌀과자, 양산빵 등이 안정적인 성장을 지속하고 있다.

베트남에서는 남은 4분기에 베트남 최대 명절인 '땃'을 대비한 선물용 기획제품을 출시해 판매대를 선점하고 대량 구매 수요가 큰 B2B(기업 간 거래) 판매도 주력할 예정이다. 아울러 호치민과 하노이 공장의 증설을 착실히 추진해 장기적인 성장기반을 마련



베트남고객이 현지 오리온 스낵을 구매하고 있다.

/오리온

할 예정이다.

식품 회사 ㈜대상은 2016년 소시지가공업체 '득 비엣'을 인수, 지난해 사명을 대상덕비엣주식회사로 변경하면서 브랜드 이미지를 제고하고 있다. 대상덕비엣에서 판매하는 '서울 핫도그'를 비롯해 햄 슬라이스, 인스턴트 소시지 등은 현지 소비자들로부터 호평을 얻고 있다. '2022년 현지인들이 사랑하는 베트남 식품'에 서울 핫도그가 2위에 이름을 올렸을 정도다.

대상은 상승세에 힘입어 베트남 육가공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낸다. 소시지 본고장 독일에서 착안한 제품 2종을 새롭게 론칭, 베트남 내 종합식품회사로 자리매김하겠다는 계획이다.

대상덕비엣은 지난달 15일 베트남에 치즈 소시지, 부르켄부르스트 소시지 2종을 출시하고 마케팅 활동을 전개했다.

이번 제품 출시로 대상덕비엣의 베트남 시장 공략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지에 소시지 소비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데다 한국의 앞선 기술력과 위생관리 시스템 덕분에 선호도도 높다.

웅진식품의 대표 스티디셀러 '아침

햇살'은 베트남에서 프리미엄 K-음료로 통한다.

베트남에서 주로 판매되고 있는 제품은 500ml와 1.5L 페트병이다. 500ml 기준 2021년 756만 병, 2022년 1021만 병 판매되며 판매량이 90% 증가했고, 첫 수출이 시작된 2015년 약 120만 병을 판매한 것과 비교하면 10배 가까이 성장했다.

올해는 지난 9월까지 800만 병 이상 팔리며 2015년부터 현재까지 누적 7000만 병 이상의 판매량을 기록 중이다. 지난해 전체 판매량이 2021년 대비 135% 성장한데 이어 올해 9월까지 이미 지난해의 판매량을 넘기며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4월 출시한 '아침햇살 흑미'도 관심을 모았다.

아침햇살의 이러한 성과는 한국 교민이 즐겨 찾는 코리안 마켓이 아닌 베트남 현지인을 대상으로 하는 로컬 마켓을 통해 이루어진 결과라 더욱 눈길을 끈다. 아침햇살은 베트남 현지 Aeon, Winmart, Big C, 메가마트, GS25, 7-11, 패밀리마트 등 대형마트와 중소형 소매점에 입점돼 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대웅제약 '엔블로' 771억 규모 수출계약

러시아 파마신테즈와 체결

전 세계 당뇨병 치료제 시장에서 국산 신약 '엔블로'가 입지를 넓히고 있다.

대웅제약은 지난 1일 러시아 제약 기업 파마신테즈와 '엔블로(성분명 : 이나보글리플로진)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파마신테즈는 러시아에서 다섯 손가락에 꼽히는 제약사로, 러시아와 독립국가연합 전역에 유통·공급망을 갖추고 있다. 이에 따라 엔블로는 러시아를 비롯해 독립국가연합의 ▲카자흐스

탄 ▲우즈베키스탄 ▲벨라루스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등 총 6개국에 진출하게 됐다.

무엇보다 이번 계약 규모는 기술료를 포함해 약 6000만 달러(771억원)다.

러시아와 독립국가연합 지역의 당뇨병 의약품 시장은 지난 2021년 기준 약 9000억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엔블로와 같은 '나트륨-포도당 공동수송체 2(SGLT-2) 억제제' 계열 당뇨병 치료제 시장은 지난 2019년 이후 연평균 성장률 32%를 기록하고 있다.

/이청하 기자 mlee236@

이랜드이츠 피자몰, 연말 맞이 신메뉴 출시

피자 3종·샐러드바 9종 선보

이랜드이츠의 피자 뷔페 브랜드 피자몰이 크리스마스 및 연말 시즌을 앞두고 오는 7일부터 신메뉴를 선보인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신메뉴는 '연말 파티' 콘셉트로 파티에 어울리는 피자 메뉴 3종과 샐러드바 메뉴 9종을 새롭게 준비했다.

신메뉴 피자 3종은 ▲엠티까지 맛있게 즐기는 포테이토 치즈 바이트 피자 ▲졸깃하고 짭짤한 페페로니를 올린 4겹 페페로니 피자 ▲크림치즈의 부드럽고 달콤한 풍미가 가득한 아몬드 크림치즈 피자다.

샐러드바의 주요 메뉴는 ▲로제 크



이랜드이츠 피자몰 연말 맞이 신메뉴. /이랜드

림 넘적 당면 ▲할라피뇨 마요 치킨 ▲그릴드 베이터블 ▲콘 크림수프 ▲치즈 포테이토 수프 등 추운 날씨에 즐기 좋은 요리와 함께 ▲아이스 밴쇼 ▲체리 초코브라우니 ▲레트로 크리스마스 케이크 ▲캐러멜 초코칩 아이스크림 등 총 40여 종이다. /최빛나 기자 vitna@

송릿다 부사장, 글로벌 R&D 센터장 임명

팜젠사이언스 신약 개발 박사

팜젠사이언스는 지난 1일 송릿다 부사장(사진)을 글로벌 R&D 센터장으로 임명했다고 3일 밝혔다.

송릿다 센터장은 이화여자대학교 약학대학을 졸업하고 프랑스 툴루즈 3 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송 센터장은 지난 1996년부터 신약 개발 경험을 쌓았다. 이를 바탕으로 팜젠사이언스가 개발하고 있는 소화기 신약 개발을 이끌어 나갈 계획이다. 오



는 2030년 전 세계 시장으로 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 현재 구축된 신약 파이프라인 외에 자가면역 질환, 퇴행성 질환, 통증 분야 등에서도 연구개발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송 센터장은 ▲신약 ▲개발 신약 ▲글로벌 사업 등 세 가지에 주력할 방침이다.

/이청하 기자 mlee236@

삼성웰스토리 "글로벌 식음 솔루션 리더로"

창립 10주년 맞아 기업 비전 선포
 해외 사업 확대해 경쟁력 강화

단체급식 및 식자재유통 전문기업 삼성웰스토리는 지난 1일 창립 10주년을 맞아 '글로벌 식음 솔루션 리더'라는 새로운 기업 비전을 선포했다고 3일 밝혔다.

삼성웰스토리는 2014년 매출 1조 6127억원을 달성한 이후 연평균 6.6%의 성장률을 기록하며 올해 2조 9000억원대 매출을 바라보고 있다.

특히 단체급식 사업은 2021년 급식 시장 개방 여파 속에서도 2012년부터 시장점유율 1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식자재유통 사업은 16%의 높은 성장률을 바탕으로 지난해 최초로 매출 1조원을 돌파하는 등 창립 이후 지속적인 성장세를 이어왔다.

해외사업의 경우 2012년 중국, 2014년 베트남에 진출했으며 지난해 기준 해외매출 3206억원으로 업계 1위를 유지하며 글로벌 기업으로의 성장 기반



1일 분당 본사에서 열린 삼성웰스토리 창립 10주년 기념 비전 선포식에서 삼성웰스토리 정해린 사장이 새로운 기업 비전을 설명하고 있다. /삼성웰스토리

을 마련해왔다.

창립 10주년을 맞은 삼성웰스토리는 지금까지 쌓아온 사업 역량을 바탕으로 해외사업을 확대하고, 급식과 식자재를 제공하는 식음서비스를 넘어 식음 밸류 체인 전반에 걸친 고객의 문제를 해결하며, 식음산업의 문화를 리딩하는 '글로벌 식음 솔루션 리더'로 진화해간다는 계획이다.

먼저, 식자재유통 사업은 국내 유통을 넘어 한국과 제 3국간의 식자재 수

출입을 증대하는 글로벌 식자재유통을 내년부터 본격화해 식량인플레이션에 따른 글로벌 공급 이슈 속에서도 새로운 사업 기회를 적극 모색한다.

해외 급식사업은 한국 기업들의 진출 증가로 시장이 형성되고 있는 미국과 최근 글로벌 기업들의 투자가 증가하고 있는 중부 유럽 등을 대상으로 신규 진출을 검토한다. 내년 상반기 베트남 현지에 완공 예정인 콜드체인 물류 센터를 기반으로 기존 진출 국가에서의 사업 경쟁력도 지속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급식 사업에서는 빠르게 변화하는 식음 트렌드와 푸드테크 발전에 발맞춰 개인화, 능동화, 자동화된 형태로 식음서비스를 제공하는 미래형 운영 모델을 도입한다.

내년 완공되는 '센트럴키친'을 시작으로 상품개발, 물류시스템, 운영모델 등에 있어 산업 전반을 리딩할 혁신도 이어간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라엘, 올리브영 어워즈 기념 기획팩 선보

유기농 순면 커버 생리대

우먼 웰니스케어 브랜드 '라엘'이 여성의 편안한 일상을 위한 제품을 선보이며 여성 건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라엘은 오는 6일까지 올리브영에서 '어워즈 한정 기획팩'을 선보인다고 3일 밝혔다. 라엘은 '2023 올리브영 어

워즈' 수상을 기념하기 위해 '어워즈 한정 기획팩'을 '유기농 순면 커버 생리대' 중형과 대형으로 구성했다. 앞서 라엘의 '유기농 순면 커버 생리대'는 '2023 올리브영 어워즈' 여성 건강을 위한 W케어 부문에서 2위로 뽑혔다. 지난 2022년에 이은 2년 연속 수상이다. /이청하 기자

+ 언어를 배우다 문화를 만나다. +

사이버한국외대 신·편입생 모집

모집일정 | 1차 23.12.1(금)~24.1.15(월) 2차 24.1.30(화)~24.2.15(목)

모집학부 | 영어학부 중국어학부 일본어학부 한국어학부 스페인어학부 베트남·인도네시아학부
산업안전·주택관리학부 다문화·심리상담학부 K뷰티학부

입학상담 | 전화 02-2173-2580 카카오톡 cufs





신한금융그룹 임직원, '온기참고' 방문... 생필품 후원

신한금융그룹이 서울역쪽방상담소에서 쪽방촌 주민들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한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날 신한금융 진옥동 회장 및 그룹사 CEO들은 '온기참고'에 방문해 1800만원 상당의 생필품을 전달했다. 진옥동 신한금융그룹 회장이 온기참고 진열대에 후원 물품을 진열하고 있다. /신한금융그룹



인하대-한진그룹, '대한민국 1도 올리기' 캠페인

인하대학교는 1일 '사랑의 연탄 나눔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3일 밝혔다. 한진그룹의 후원으로 올해 6회를 맞이한 이번 봉사활동에는 인하대학교 학생, 조영우 총장과 교직원 등 150여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미추홀구 학익동의 한 마을을 찾아 이웃 주민에게 직접 연탄 4000여장을 전하며 '대한민국 1도 올리기' 캠페인 펼쳤다. /인하대학교



현대삼호중 주부대학 총동창회, 사랑의 김장 나눔

HD현대 계열사인 현대삼호중공업 주부대학 총동창회가 동절기 지역 어려운 이웃에게 김장김치를 나누며 온정을 전했다. 현대삼호중공업은 지난 1일 기숙사 식당에서 신현대 사장, 김옥조 총동창회장을 비롯한 임직원과 주부대학 회원 8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사랑의 김장 나눔' 행사를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현대삼호중공업



제주항공, '사랑의 연탄 나눔' 봉사활동 실시

제주항공 임직원들이 연말을 맞아 이웃들에게 '사랑의 연탄 나눔'을 통해 따뜻한 마음을 전했다. 2일 서울시 관악구 삼성동에서 임직원 65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임직원의 자발적 참여로 모은 연탄 2만4800여장과 함께 우유팩 다시 쓰기 캠페인을 통해 모은 우유팩 1만2400여개를 재활용한 재생화장지를 이웃들에게 전달했다. /제주항공

현대차 한재필 영업부장 '판매거장' 영예

현대자동차가 한재필 인턴트럭지점 영업부장(사진)을 지난 달 29일 기준으로 상용차누계 판매 2500대를 달성해 상용차 '판매거장'에 선정했다고 3일 밝혔다. 상용차 '판매거장'은 상용차누계 판매 2500대를 돌파한 우수 영업사원에게 주어지는 칭호로 한재필 영업부장은 1990년 입사 후 33년 만에 역대 5번째로 상용차 '판매거장'이라는 영예를 안게 되었다. /양성운 기자 ysw@



삼성, 이웃사랑성금 500억 쾌척... '동행 비전' 이어간다

삼성전자 등 23개 관계사 힘 모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성금 기탁

삼성이 글로벌 위기 속에서도 500억원을 나누며 '동행 비전'을 이어갔다.

삼성은 지난 1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이웃사랑성금 500억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삼성이 전달한 성금은 ▲청소년 교육 지원 ▲사회적약자 지원 등에 사용된다.

삼성은 반도체 사업 적자 등 실적 하락 속에서도 연말 성금 규모를 전년과 같이 유지했다. 1999년 100억원으로 시작해 2004년부터 200억원, 2011년 300억원에서 2012년 500억원으로 누적 기부액만 8200억원에 달한다.

삼성은 이같은 노력을 인정받아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부터 감사패를 받기도 했다.

올해 성금은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삼성SDI ▲삼성전기 ▲



삼성글로벌리서치 제현웅 CSR연구실 부사장(왼쪽부터), 삼성전자 황준 사원대표, 삼성사회공헌업무총괄 최영무 사장, 사회복지공동모금회김병준 회장, 삼성전자 서준영 사원대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황인식 사무총장이 지난 1일 서울 중구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열린 연말 이웃사랑성금 전달식에 참석해 기념 촬영하고 있다. /삼성전자

삼성SDS ▲삼성생명 ▲삼성화재 ▲삼성카드 ▲삼성증권 ▲삼성물산 ▲삼성엔지니어링 ▲제일기획 ▲에스원 등 23개 관계사가 함께 모았다. 각 사별 승인 절차를 거치며 준법 경영도 지켰다.

특히 지난해에 이어 23개 관계사 임직원이 모은 기부금도 포함해 의미를 더했다. 최근에는 연말 성금과

는 별개로 '삼성 기부페이'를 통해 일상 기부 문화를 확대하고 내년 기부 계획을 먼저 신청받기도 했다.

아울러 삼성은 올해에도 NGO 8곳과 함께 2024년도 탁상 달력 29만대를 제작해 임직원들과 나눌 예정이다. 삼성은 2019년부터 NGO 활동을 담은 달력을 구매하는 방식으로 NGO를 지원하고, 임직원들에게도 사회

공헌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있다.

김병준 회장은 "어려운 경제 여건이 지속되면서 그 어느때 보다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이 많아졌다"며 "삼성이 기탁한 소중한 성금은 우리 이웃들이 더 나은 삶을 꿈꾸고 보다 밝은미래를 만들어 가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용 기자 juk@metroseoul.co.kr

우리은행, 순환경제 실천 앞장

환경공단·E-순환거버넌스 MOU 노후 자동화기기 약 100여대 기부

우리은행은 한국환경공단과 E-순환거버넌스와 함께 'E-Waste Zero, ESG 경영 실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우리은행은 내용연수가 경과하였거나 폐기 예정인 전기·전자제품을 E-순환거버넌스에서 운영 중인 '모두비움, ESG나눔' 자원순환 프로그램에 기부하고, E-순환거버넌스는 기부받은 제품을 다양한 분야에 재활용함으로써 순환경제를 실천한다. 한국환경공단은 전기·전자제품 회수와 재활용 촉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우리은행은 전국영업점에서 사용 중인 자동화기기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회수·재활용을 위해



우리은행은 지난 1일 서울 중구 소재 우리은행 본점에서 한국환경공단, E-순환거버넌스와 업무협약을 체결 후 안병욱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왼쪽부터), 조병규 우리은행장, 장덕기 E-순환거버넌스 이사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우리은행

올해 내용연수 경과 자동화기기 약 100여대를 은행권 최초로 기부한다.

조병규 은행장은 "우리은행은 앞으로도 자원순환 활성화에 적극 기여하고, 나아가 친환경금융 확산에도 힘써 '금융을 통해 우리가 만드는 더 나은 세상'이라는 ESG 비전 실천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승용 기자 lsy2665@

CJ제일제당, 대리점 동행 우수기업 선정

전자계약 시스템 구축 등 고평가

CJ제일제당이 지속가능경영(ESG)을 실천하기 위해 펼친 상생 협력의 노력을 또 한 번 인정받았다.

CJ제일제당은 지난해에 이어 공정거래위원회가 주최하는 '대리점 동행기업 선정식'에서 우수 기업으로 선정됐다.

대리점 동행기업은 대리점 분야 상생 문화 확산하기 위해 공정위가 운영하는 제도다. ▲최초 계약시 계약기간 또는 계약 갱신 요구권 보장 기간을 5년 이상으로 설정 ▲최초 인테리어 비용과 리뉴얼 시 소요비

용의 50% 이상 지원 ▲금리·임대료 지원 등 금융·자금 지원제도 운영 ▲온·오프라인 상생모델을 모범적으로 활용 ▲최근 1년 내 대리점분야 협약이행평가가 최우수 및 우수 기업 등 5가지 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CJ제일제당은 대리점 전자계약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계약의 공정성·투명성 확립에 노력한 점, 대리점 업무전 과정 전산화를 통한 투명성 확보, 자녀 학자금 지원 등 실질적인 지원 방법을 마련한 점 등을 높게 평가받았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이성환 고려대 교수, 과기부 장관상 수상

고려대학교는 이성환 인공지능학과 특훈교수(사진)가 지난 1일 오타위에서 열린 'SW R&D 우수성과 및 유공자 시상식'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상을 받았다고 3일 밝혔다.

이성환 인공지능학과 특훈교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원하는 SW컴퓨팅산업원천기술개발사업인 'SW스타랩: 이동 환경에서 뇌-컴

퓨터 인터페이스를 위한 지능형 패턴인식 소프트웨어 개발' 과제를 수행하며 인공지능 SW 개발, 세계 최고 수준의 학술 논문 발표, 특허 등록을 통한 원천기술 확보, 기술이전 등의 탁월한 성과를 창출했다. /이현진 기자 lhj@



현대차, '현대키즈모터쇼' 온라인 접수

'미래도시' 주제 그림 공모

어린이들이 상상하는 미래도시를 실현시켜주는 그림 공모전이 개최된다.

현대자동차는 어린이들이 상상하는 '미래도시'를 주제로 한 그림 공모전 '제8회 현대키즈모터쇼' 온라인 접수를 4일부터 2024년 1월 12일까지 진행한다고 3일 밝혔다. 2016년 세계 최초 어린이 상상력 모터쇼 콘셉트로 시작해 올해 8회째를 맞이하는 현대차의 대표적 성장세대 대상 캠페인으로 작품 공모 수, 전시 방문객 수가 매년 증가하며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번 공모전 주제는 '상상 속 미

래도시를 그려주세요'로 선정했다. 미래도시, 미래 항공 이동수단, 미래 로봇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아이들의 관심과 친밀감 형성을 유도해 배우는 과정을 경험하고, 상상력과 창의력을 키우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현대키즈모터쇼'에 출품된 작품은 미술, 교육분야 전문가 심사를 통해 본선 진출작 150점이 선정된다. 이후 최우수 부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상 3점, 현대자동차 대표 이사상 3점' 총 6개 작품을 최종 선정한다. 특히 6개 수상작은 2024년 5월 가정의 달에 맞춰 디지털로 구현해 일반인의 관심과 체험을 유도할 계획이다. /양성운 기자 ysw@

부음

▲이덕광씨 별세, 유족권씨 남편상. 이영호(현대건설 홍보실장)·이영환씨 부친상, 박나연·이윤미씨 시부상 = 2일, 부산대학교병원 장례식장 특1호실, 발인 5일 오전 6시30분, 장지 부산영락공원. 051-240-7161 ▲이만구씨 별세, 이경우·진우(더벨 편집국장)·진숙씨 부친상, 박태환씨 장인

상, 이현정·김혜정씨 시부상=연세대 신촌세브란스병원장례식장 특1호실, 발인 5일, 장지 경기도 양주 선영, 02-2227-7500 ▲최희평씨 별세, 최유란·유정(작가)·유경·유진씨 부친상, 박현웅·조오섭(민주당 국회의원)·박태오씨 장인상=3일 오전 광주 그린장례문화원 장공실, 발인 5일 오전 8시20분, 062-250-4455.



가성비 좋은 너로 정했다!

대한홍삼 건강백화점

무료 창업 교육

복지 쇼핑몰(온라인) + 건강백화점(오프라인)

교육 일정

A반 : 2023년 12월 4, 11, 18일 월요일 오후 6시 ~ 9시
B반 : 2023년 12월 7, 14, 21일 목요일 오후 2시 ~ 5시

교육 정원

매월 선착순 30명 (정원초과 시 익월 수강)

교육비

전액 무료

교육대상

전국 예비창업자, 소상공인, 자영업자, 주부사원, 직장인, 퇴직자 등

교육목표

실전교육 **전문적인 사례 중심**
매출상승 **다양한 매출전략 교육**
전문양성 **성공적인 창업 배출**

수강혜택

수료하신 모든 분들께 **고급홍삼세트** 증정

수강방법

M : 010-4480-0045 / E-mail : haettercs@naver.com
문자 또는 메일로 성함, 연락처 보내주시면 접수완료문자 전송해드립니다.

교육주관



교육강사

햇터그룹 회장 박광섭 (CEO 35년 경력)



햇터
햇터그룹지주회사



브레인TV
3천만이상 시청자 보유
방송전문기업



대한홍삼
국내5대 브랜드
홍삼전문기업



한삼장홍삼
건강식품 / 용품
유통전문기업



햇터라이프
업계최초 계층형 B2E
E커머스 플랫폼 전문

교육장소

본사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마산로96, 대륭테크노타운 8차 601호
가산디지털단지역 1호선 11번 또는 7호선 9번 출구에서 600m

교육문의

햇터그룹 창업아카데미 고객센터 010-4480-0045
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

파산폐지 결정 받았는데, 또 신청해도 되나요?



**박규익 변호사의
도산법 바로알기**

파산폐지결정을 쉽게 말하면 파산절차가 종료됐다는 것이다. 2008년 세계적인 금융위기 당시 파산절차를 진행해 끝마친 사람이 그 이후 다시 채권, 채무관계를 맺으며 생활했다가 코로나로 생계에 위기가 닥쳐 다시 파산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런데 과연 파산신청은 무한정으로 허용되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 파산제도에 '재도의 파산신청'이란 게 있다. '재도의 파산신청'이란 채무자가 동일한 파산에 관하여 면책신청기간을 경과하거나 재차 면책신청을 하지 못하는 등의 법률상 제한을 피하고자 오로지 면책을 받기 위해 동일한 파산원인으로 다시 파산신청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보통 파산신청과 함께 채무를 면하게 해달라는 면책신청을 하는데, 면책신청은 파산신청일부터 파산선고가 확정된 날 이후 1월 이내에 진행해야 한다(채무자회생

법 제556조 제1항). 따라서 파산신청은 했지만 개인의 잘못으로 위 기간이 지날 때까지 면책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해당 당사자는 채무에 대한 면책을 받지 못한다. 이 경우 면책신청을 하기 위해 재차 동일한 파산신청을 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우리 법원은 '재도의 파산신청'을 허용하지 않는다.

그러나 단순히 파산선고를 받은 후 면책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다시 파산신청을 했다는 외형적 결과만으로 '재도의 파산신청'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고, 파산신청의 원인이 동일하지를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자.

A씨는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파산선고를 받았다가 그 후 면책신청을 취하해 중국적으로 파산폐지결정이 내려졌다. 그로부터 약 3년 4개월 후, 자녀가 중증장애로 치료를 받아야 하는 등 종전 파산신청 당시보다 상황이 악화돼 새롭게 발생한 채권을 추가해 파산신청을 했다. 이 사안에서 최근 대법원은 "종전 사건 이후에 새롭게 발생한 채권을 추가함과 동시에 종전 사건 이후에 개인회생신청의 진행에도 불

구하고 종전 파산신청 당시보다 재산상황이 악화된 경위를 파산원인으로 추가해 구체적으로 소명함으로써 새로운 파산원인을 주장하면서 파산신청을 했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대법원 2023. 6. 30. 자 2023마5321결정).

간단하게 말하면, 직전에 파산신청을 해 종료된 경험이 있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채권, 채무관계가 생긴 상태에서 다시 파산을 신청하게 된 추가적인 경제사정 악화 등의 경위가 있다면 그 파산신청은 '재도의 파산신청'이 아니므로 허용되는 것이다. 다만 수시로 파산 절차를 이용하여 채무를 면하려고 시도했거나 충분히 소득을 발생시켜 채무의 상당부분을 계속적으로 변제하는 회생절차를 밟을 수 있는데도 파산을 신청한 경우, 재도의 파산신청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파산신청이 파산절차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면 법원은 파산을 기각한다. 따라서 회생이나 파산경험이 있는 채무자가 다시금 도산 절차를 진행하고자 한다면, 좀 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법무법인 바른

부동산 시장 다시 얼어붙나?



**김지수
김대환
(건설부동산부)**

정부가 지난달 5곳의 신규 공공택지를 발표했지만 업계에서는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을 회복시키기에는 어려울 것이라 전망이 나온다. 금리 인상, 공사비 상승, 분양시장 위축 등으로 신규 공공택지 발표에도 매수심리 회복과 집값 상승효과는 미미할 것이라 분석이다.

정부는 지난달 15일 '구리·오산·용인·청주·제주' 등 총 5개 지구, 8만호 공급계획을 발표했다. 수도권은 경기 구리토평 2(1만8500가구)·오산세교3(3만1000가구)·용인이동(1만6000가구) 등 3개 지구에 6만5500가구를 선정했다. 비수도권의 경우 청주분평2(9000가구), 제주화북2(5500가구) 등 2곳에 1만4500가구를 공급한다.

정부의 공급대책 발표 이후에도 해당 지역들의 집값은 상승세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 서울 집값도 28주만에 상승세를 멈춘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정부의 대출 규제 강화와 고금리 기조가 이어지고 있어서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1월 넷째 주(27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은 상승을 멈추고 보합(0.00%)을 나타냈다. 지난해 5월 첫째 주(0.01%) 이후 지속된 상승세가 28주만에 꺾인 것이다.

한국부동산원의 '주간아파트동향'에 따르면 11월 넷째 주(27일 기준) 경기도 구리시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0.07%)에 이어 0.03% 오르며 상승폭이 축소됐다. 같은 기간 용인 처인구(0.09%→-0.04%)도 상승폭이 줄었다. 오산시의 경우 0.02%에서 0.05% 상승에 그쳐 신규 택지 발표에 따른 집값 상승 영향은 크진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전문가들은 택지 완공 및 아파트 입주

초기 광역교통망이 먼저 개통되지 못하는 고질적인 교통망의 불편문제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예산확보 및 교통망 개발시점 준수가 택지개발 시 전제될 필요가 있다는 것.

특히 집값 회복은 금리 하락, 경기회복이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부동산원은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심리가 가라앉으면서 거래가 감소했으며, 관망세가 깊어지는 가운데 매물이 누적되며 매도 희망가가 하락 조정됐다"고 밝혔다. 내년까지 지켜보겠다는 관망세가 짙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 "내년 서울 입주물량 감소로 인한 전세시장 불안요인의 단기 해결책으로는 제한적이다"라면서 "반도체 클러스터 및 유니콘팩토리 같은 민간 기업들의 입주유형 등 사전 조율이 전제될 필요가 있다는 점은 택지 성장에 변수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kdh@

오늘의 운세 12월 4일 (음 10월 22일) http://www.saju4000.com



36년생 마음의 평화는 바라보는 시선대로이다. 48년생 좋은 인연으로 새로운 거처가 생긴다. 60년생 3시 지나서 운전은 양보하면서 하자. 72년생 힘찬 운이 도래했으니 하고 싶은 일을 해보자. 84년생 주변에 줌독독을 조심해야.



37년생 가족이 헤어지기보다 기회를 찾아보자. 49년생 무덤에서 잠을 자보는 마음으로 두려워 말고 경건히. 61년생 지치기 쉬운 날이니 휴식이 필요. 73년생 가족 간에 서로 양보를. 85년생 일이 생기기 전에 미리 알아차리도록.



38년생 상부상조가 이익이다. 50년생 배고픈 사람 앞에서 상대적으로 배부른 고민하지 말자. 62년생 사람을 차별 질 수는 없으나 미운 것은 밟다. 74년생 진로 수정은 신중히 해서 되돌아오는 민망함이 없도록. 86년생 작정 기도를 신청.



39년생 남쪽에서 친구가 찾아오니 기쁘다. 51년생 선봉에 나서는 것은 시기를 받을 수 있으니 겸손히. 63년생 노력은 복덕의 근간. 75년생 동료와 화목해야 능률도 오름. 87년생 재주를 믿고 교만한 직원이 선동할 것이니 거리 두기를.



40년생 집착이 결국 가족을 홀트리게 한다. 52년생 먹물을 가까이하면 거머질 수밖에 없으니 도박조심. 64년생 시작도 중요하고 마무리도 중요하니. 76년생 부부간 이기적인 마음을 접자. 88년생 젊은 시절은 다시 돌아오지 않으니.



41년생 집수리가 늦어져 답답하나 서두르다가 무너진다. 53년생 운이 호전되어 금전과 사랑이 따른다. 65년생 외출 때 차량 점검. 77년생 친구의 연인에게 일시적인 감정 표출로 후회할 수 있으니 말조심. 89년생 웃는 집에 복이 온다.



42년생 집안 풍습에는 액운을 막아주는 효험이 있다. 54년생 먹을 복이 있으니 최상이다. 66년생 무엇이든 지나치면 좋은 것이 없다. 78년생 취직으로 걱정이 해소되고 마음이 평화로운 날. 90년생 부모님께 세심하게 마음을 써서 존경.



43년생 동네 모임에서 대우받기를 바라지 말고 상대의 말을 경청. 55년생 외나무다리에서 원수를 만나는 격. 67년생 자책하지 말고 스스로 응원하라. 79년생 휴가를 얻어 여행을 간다. 91년생 성한 것은 반드시 쇠할 때가 오니 평소 겸손.



44년생 과유불급이니 지나친 운동을 삼가라. 56년생 시작이 좋으니 마무리도 산뜻. 68년생 좋은 말로 속삭이는 투자를 경계. 80년생 직장에서 상을 받으니 마음이나 날아갈 듯 낙낙하다. 92년생 본성 나쁜 직원의 도둑수이니 내가 조심.



45년생 자격증 시험에 합격하여 너무나 기쁘다. 57년생 살다 보면 힘든 일이 몰려올 때도 있다. 69년생 부부간에 대화 중 의견대립이 생길 수. 81년생 이사 준비로 바쁜데 이웃사촌이 방문하여 복잡. 93년생 후천적 운세가 향상되니 희망적.



46년생 좋은 결과를 위해서는 포장도 깨끗하게. 58년생 세상살이 보는 눈을 조금만 달리해보면 축복이다. 70년생 일이 순조롭게 풀린다. 82년생 이혼하려는 남의 말에 좌우되지 말고 주관을. 94년생 미래 인생 어떻게 마음먹느냐에 따라.



47년생 매파 소식은 기다리던 것일수록 잘 살펴라. 59년생 다른 사람에게 눈길 주지 말고 성실히. 71년생 주어진 상황에서 즐거운 일을 찾자. 83년생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다 놓칠 수 있으니 신중. 95년생 늦지 않았으니 실비보험을 들도록.



김상회의四季 끼리끼리 인연

법규경 나오는 얘기가. 석가모니께서 어느 날 바라문족에게 설법을 하고 난 뒤 그들과 길을 걷게 되었다. 도중에 길 위에 어떤 종이 떨어져 있는 것이 보이자 부처님은 그 종이를 집어오라고 일렀다. 한 바라문이 종이를 집어오니 부처님은 그 종이가 어디에 쓰였던 것이었는지 묻자, 향내가 나는 것으로 보아 분명 향을 썼던 종이임이 분명하다고 대답한다. 다시 길을 가는데 이번에는 새끼줄이 떨어져 있었다. 부처님은 그 새끼줄을 집어오라고 하며 이 새끼줄은 어디에 쓰였는지 알 수 있겠느냐고 바라문에게 물었다.

새끼줄에서 비린내가 나는 것으로 필시 생선을 묶는 데 쓰였던 것이라고 대답했다. 그러자 부처님이 말씀했다. "인연은 이렇게 중요하다. 사물은 본래 깨끗한 것이지만 어떤 인연을 만나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죄지를 인연을 만나면 죄를 짓게 되고 복 받을 인연을 만나면 복 받을 일을 하게 된다. 마음이 어질고 사리에 밝은 사람과 함께 하면 진리를 추구하는 마음이 커지고 어리석고 사리에 어두운 사람과 가까이 하면 재앙 받을 일을 하게 되니 저 종이와 새끼줄처럼 향을 가까이하면 향기롭게 되고 생선을 싸게 되면 비린내가 나게 되는 것이다.

조금씩 물들지만 결국 몸에 배어들게 된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 "우리 속담에도 '끼리끼리 모인다.' 라는 말이 있고 서양 속담에도 '깃털들이 함께 뭉쳐 모인다.' 라는 유유상종을 뜻하는 속담이 있다. 좋은 인연은 분명 인생의 소중한 자산이다. 그래서 친구를 잘 사귀어야 하고 가릴 줄 알아야 한다. 잘못된 인연은 물질적 손실은 물론 사람의 격도 한 하천 하게 만든다. 재물 적 이익 그 이상의 가치다. 최근 펜싱계 재원이었던 N씨 속을 수밖에 없었다고 하나 잘못된 인연을 맺은 탓이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스도쿠365

3X3 �도쿠 X는 가로세로 3X3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화색 9칸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4			6		7
	3				6
	9		1	5	4
2	8			6	1
1	6	9			2
3				7	
8		4			9

결합형스도쿠

		2	3	7	6
	4				
		9	4		1
			8		1
					9
8	9		3		
1			5	2	
					2
3		2	6	9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크리드의 월드파일을 즐겨보세요
http://www.argo9.com

할인도서

6	8	9	2	1	7	4	5	8
5	4	7	6	9	8	1	2	3
2	8	1	5	4	9	7	6	3
3	2	4	8	7	6	9	5	1
1	9	6	3	5	2	7	8	4
7	9	8	1	2	9	3	6	4
8	1	2	7	6	9	2	5	8
9	7	2	4	8	1	6	3	5
4	6	9	9	3	2	8	1	7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김승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206 2002년5월28일 제5323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1427호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교육활동 지원비’ 11% 늘려 저소득층 학생 교육격차 해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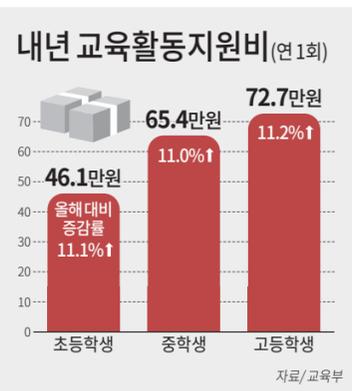
상향 급여, 내년 3월 1일부터 적용
중위소득 인상 돼 지원 학생 늘어
초 46만원·중 65만원·고 73만원

정부가 저소득층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지급하는 교육급여 ‘교육활동 지원비’가 내년 약 11% 인상된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4일부터 ‘2024년 교육급여의 선정 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일부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교육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 급여 중 하나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초·중·고 학생에게 교육비를 지원하는 복지제도다.

2024년에는 기준 중위소득이 올해보다 6.09% 인상돼 역대 최대로 오르면서 더 많은 저소득층 학생들이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가구별 소득액이 ▲2인 가구 184만



1305원 ▲3인 가구 235만7329원 ▲4인 가구 286만4957원 ▲5인 가구 334만7868원 ▲6인 가구 380만9185원 이하 일 경우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다. 상향된 급여 수준은 내년 3월1일부터 적용 예정이다.

내년 교육활동지원비 기준 액수는 2023년에 비해 평균 11% 인상해 연간 ▲초등학생 46만1000원 ▲중학생 65만4000원 ▲고등학생 72만7000원을 지원

할 예정이다. 올해 기준액은 ▲초등학생 41만5000원 ▲중학생 58만9000원 ▲고등학생 65만4000원으로 내년 각각 11.1%, 11%, 11.2% 오르는 셈이다. 교육급여 수급자가 자사고, 특목고 등 무상교육에서 제외되는 고등학교에 재학할 경우 입학금과 수업료, 교과서 비용을 전액 지원한다.

‘2024년 교육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기간은 12월 4일부터 12월 26일까지이며, 세부내용은 교육부 누리집(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및 개인은 우편과 팩스, 전자우편(이메일)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김태훈 교육복지특별지원관은 “교육부는 앞으로도 소득격차가 교육격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저소득층 학생들에 대해 더욱 두텁고 촘촘하게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현진 기자 ljh@metroseoul.co.kr



서울 트윈아이 조감도.

/서울시

서울 상암에 ‘트윈 휠’ 대관람차 들어선다

세계 최초 교차형태 관람차 사업추진
지름 180m 규모, 1440명 동시 탑승

서울 마포구 상암동 일대에 세계 최초로 두 개의 고리가 교차하는 ‘트윈 휠(Twin Wheel)’ 형태의 대관람차가 만들어질 전망이다.

서울시는 상암 월드컵공원 내 평화의공원에 대관람차를 포함한 복합문화시설을 조성하는 ‘(가칭)서울 트윈아이(Seoul TwinEye)’를 최초 제안으로 접수하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들어간다고 3일 밝혔다.

시는 올 3월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월드컵공원 등 상암동 일대에 살 없는(Spokeless) 고리 형태의 대관람차를 설치하는 민간투

자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와 더리츠 외 3개사로 구성된 ‘(가칭)서울 트윈아이 컨소시엄’은 서울시가 추진하는 대관람차 민간 사업자 공모에 지난달 29일 제안서를 제출했다.

제안서에는 지름 180m 규모의 대관람차 디자인이 담겼다. 살이 없는(Spokeless) 디자인으로는 세계 최대, 고리가 교차하는 트윈 휠 형태로는 세계 최초로, 캡슐 64개에 한 주기당 1440명이 탑승할 수 있다. 두 개의 고리가 교차해 내진 및 내풍 안전성 확보에 유리하며, 내·외측 휠을 활용해 동시 탑승 인원이 늘어나 사업성을 높일 수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김현정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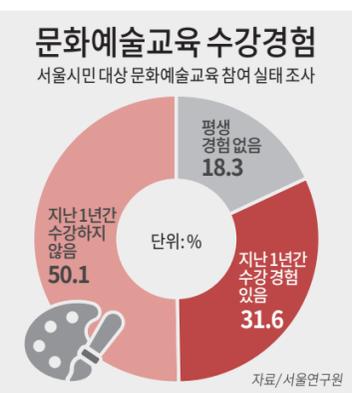
서울시민 32%, 문화예술교육 수강 경험

영화분야 가장 많아... 年 38만원 지출
성취감, 자존감 향상 등 긍정적 영향

서울시민 10명 중 3명 이상은 지난 1년간 문화예술교육을 수강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들이 문화예술교육에 지출한 비용은 연평균 약 40만원이었다.

3일 서울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문화예술교육 참여 실태 및 정책 요구 조사를 진행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31.6%가 지난 1년 안에 문화예술교육을 수강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평생 경험 없음은 18.3%, 경험은 있지만 지난 1년간 경험 없음은 50.1%로 집계됐다.

서울시민이 가장 많이 수강한 문화예술교육 분야는 영화(30.4%)였다. 사진(11.7%), 음악(11.4%), 공예



(9.5%), 미술(7.6%)이 그다음이었다. 시민들이 문화예술교육에 지출한 비용은 연평균 38만3000원이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48만4000원으로 씬씀이가 가장 컸다. 이어 30대 46만9000원, 50대 39만5000원, 20대 36만8000원 순이었다. 60대는 가장 적은 19만9000원

을 지출했다. 문화예술교육 수강 기간은 2~3개월이 33.9%로 가장 많았다. 4~6개월(22.5%), 1회성 프로그램(19.0%), 1개월 미만(14.9%), 7개월 이상(9.8%)이 뒤를 이었다.

시민 중 절반 이상(55.1%)이 문화예술교육을 혼자 수강한다고 답했다. 친구 및 연인(18.4%), 가족 혹은 친척(15.2%)이 그다음이었다. 시민들이 문화예술교육에 참여하는 이유로 가장 많이 꼽은 것은 ‘삶의 의미, 성취감, 자존감 향상 등을 위해’(20.9%)였다.

연구진은 “시민들은 수강했던 문화예술교육이 개인 심리적 차원, 자기 계발 및 성취감 등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고 평가했다”고 밝혔다.

/김현정 기자 hik1@

광명시, 한파 대비 취약계층 보호 나서

제설함 비치, 한파 대처 요령 홍보 등

광명시(시장 박승원)는 내년 3월 15일까지 이어지는 겨울철 대책 기간 대설, 한파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겨울철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우선 주요 간선도로변 및 이면도로에 총 468개의 제설함을 비치하고 제설제 1천700여 톤 및 살포기 19대와 제설기 4대, 덤프트럭 9대 등 제설 장비를 확보했으며 제설 대응 종합 훈련 실시, 인접 지자체 및 유관기관과의 제설 공조 협조체계 구축 등 선제 대응을 완

료했다. 시는 한파에 대비해서는 T/F팀을 운영해 비상 상황에 대비하고, 취약계층 보호 대책을 마련해 시민 보호에 나선다. 광명시는 대설, 한파에 시민이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대설·한파 대응 행동 요령을 홍보하는 한편 기상특보 특보 발효 시 재난 문자, 전광판 등을 활용해 즉시 안내할 예정이다.

/광명(경기)=김대의 기자 dykimi@

호서대, 교차설강제 등 ‘유연학사제도’ 도입

학생 학습선택권 보장 확대

호서대학교가 학생의 학습선택권 보장 확대와 융복합 교육 강화를 위한 ‘유연학사제도 설명회’를 지난 달 28일 개최하고, 기존 유연학사제도의 활성화 방안과 신규 도입 제도를 소개했다.

3일 호서대에 따르면, 이번 설명회에서 호서대가 핵심으로 내세운 제도는 두 가지다. 하나는 ‘교차설강제(Co-de Sharing)’다. 교차설강제란 전공 간 경계를 허물어 교수와 학생이 타 전공 수업을 개설하거나 수강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이를 주전공 시수 및 학점

으로 인정하는 제도다. 호서대는 이를 전면 시행해 학생 스스로 다양한 지식을 탐색·융합할 수 있도록 돕고, 필요한 역량을 다방면으로 증진시킬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른 하나는 ‘이중설강운영’이다. 이중설강이란 다전공 이수 소요가 많은 교과목을 대상으로 대면수업과 원격수업을 동시에 지원하는 제도다. 이는 서울, 천안, 아산, 당진에 캠퍼스를 두고 있는 대학의 특성상 학생이 겪는 공간·시간적 제약을 해결하고 학사 운영의 유연성을 강화할 수 있다는 게 호서대의 설명이다.

/이현진 기자

오늘의 날씨

해돋이 / 07:30 | 해질 / 17:14

12월 4일 (월)
음력 : 10월 22일

수도권 날씨
-2 ~ 8°C

운동 지수: [Progress bar]

빨래 지수: [Progress bar]

세차 지수: [Progress bar]

외출 지수: [Progress bar]

지역별 날씨: 연천 -6/7, 동두천 -5/8, 가평 -6/7, 파주 -6/7, 서울 -2/8, 양평 -5/7, 인천 -1/8, 수원 -1/8, 용인 -1/8, 평택 -4/8

자료제공: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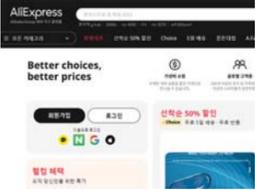


▲필리핀 남부해안 규모 7.6지진, 일본 등 주변국 쓰나미 경보
▲中 덩샤오핑 부총리 “선진국, 개도국 기후변화 대응 지원 늘려야” /사진 뉴시스

▲“바이든을 버려라”...美일부 경합주 무슬림들 낙선운동 선언
▲美이스라엘 영사관 앞 시위도중 팔레스타인 시위자 분신 시도



▲중국 완상신탁, 1800억원 넘는 만기 도래 상품 환매 연체
▲이스라엘, 가자지구에 폭격·로켓포 탄 10만발 공격 /사진 뉴시스



알리
내년 韓 물류창고
구축 전망
나



Life

아침햇살, 핫도그
베트남 홀린
K-푸드
L2



“지역영화 지원으로 지역성장은 물론 영화발전 이끌어야”



새벽을 여는 사람들

김진곤 영화감독

최근 4년 사이 한국영화 위기에 빠졌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비싸진 티켓 가격과 넷플릭스와 같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플랫폼으로 인해 극장 관객의 발길이 뜸해지고 있다. 자연스럽게 독립영화계도 역풍을 피해가지 못하면서 제작비지원과 관심이 낮아지고 있는 현실이다.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선 지역영화를 기반으로 지역주민들의 관심을 높이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 지자체가 외면하는 지역영화의 중요성

지역영화는 한마디로 정의하기 어렵지만 지역의 역사와 정서에 맞는 콘텐츠를 영화로 제작하고, 지역주민들이 같이 공감할 수 있는 영화라고 생각한다.

지역의 콘텐츠라 함은 지역의 역사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삶의 이야기로, 시나 소설 등의 문학과 음악, 미술, 배우 등의 예술인의 삶 이야기로 만들어진 문화콘텐츠라고 설명할 수 있다.

김진곤 영화감독은 올해 은평뉴타운 도서관에서 영화 ‘녹번리’ 상영회를 통해 지역주민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았다.

“영화 ‘녹번리’는 불안한 청년시대의 고뇌를 정지용 시인의 ‘녹번리’라는 시를 투영해 만들었다”며 “은평구 지역 영화인과 정화예술대 학생들이 참여해 영화를 촬영했다”고 말했다.

또한 “사람들이 영화를 봤을 때 녹번동에 있었던 당시의 시대상을 고스란히 품고 있는 시와 시인, 그리고 1950년 1월, 시의 발표 후 벌어졌던 참혹했던 역사를 기억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다만 이런 영화인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자체에서의 지원은 없는 것이 현재 독립영화의 현실이다.

그는 “지역 영화 제작을 해야 된다는 영화감독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실제 제작을 해도 지자체와 관공서는 이를 알지도 못하고 관심이 없다”며 “행정적 지원과 예산적 지원을 못 받는 영화가 대다수인 걸 감안하면, 문화에 비해 각 행정관청은 뒤쳐져 있기 일쑤다”라고 답답한 마음을 전했다.

또한 지역축제 역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감독은 “지역축제를 보면 10여전이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없고 먹거리와 물건을 판매하고 가수를 초빙해 노래 부르는 행사가 전부다”라며 “지역축제라며 지역적 특색 없는 축제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 안타깝다”고 했다.



김진곤 감독이 연출한 영화 포스터



김진곤 영화감독.



김진곤 감독 영화 촬영 현장과 영화 ‘녹번리’ 시사회 모습.



지역 역사·정서에 맞는 콘텐츠로 영화 제작 영화 ‘녹번리’로 지역주민에 많은 관심 받아

지역영화 제작에도 지자체 지원 받기 힘들어 문화에 비해 뒤쳐져 있는 행정관청 안타까워

내년 영화진흥위원회 예산 50% 이상 줄여 영화·문화 관련 예산 삭감 아닌 지원이 절실

이어 “지역축제인 만큼 지역주민들이 즐길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해야하고 지역 영화제나 영화 상영회 등을 통해 주민간의 소통이 일어나고, 그 곳에서 살고 있는 것에 대해 자부심을 갖게 해야 한다”며 “그들은 다시 지역문화와 행정에 적극적 참여를 통해 지역성장을 이루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런 결과를 기대한다면, 예산 편성에 있어서 지역영화 지원 폭을 높여야 하는 것이 당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지역 미디어센터 활성화 필요”

영화인과 예술업종에 종사하는 많은 아티스트들 역시 ‘지역 콘텐츠’에 관심을 갖고, 지역 국회의원 역시 이를 개발하는 일에 힘써야 한다. 그래야만 지자체에서도 관심을 갖기 때문이다. 국가적인 지원이 없으면 자연스럽게 지자체의 지원이 사라지게 되면서 영화를 만들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는 “영화는 감독이 혼자 한다고 해서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촬영지와 장소, 배우 등이 섭외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처럼 다방면의 지원과 협업으로 영화가 만들어지게 된다”며 “독립영화가 성장 할 때까지는

지자체의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현실이고, 지역 미디어센터와 같은 공간을 예산부족이란 명목으로 폐쇄시키는 것은 지역영화인을 낭떠러지로 미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김 감독의 이 같은 발언은 이달 말 폐쇄되는 의정부영상 미디어센터 때문이다.

의정부영상미디어센터(센터)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관한 지역영상미디어센터 설립 정책의 일환으로 의정부시가 2017년 개관했다.

센터는 연간 평균 5만명의 시민이 이용하는 공간으로 자리 잡았고, 장비와 시설, 공간 대여, 영화 상영 등 다양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해 경기 북부 문화 거점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지난 9월 의정부는 내년도 정부 예산 삭감을 이유로 센터를 2023년 12월까지 운영하고 오는 2024년 폐관한다고 통보했다.

김 감독은 “현재 우리나라가 미디어 부분에서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상황에서 예산이 사라진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BTS, 오징어게임 등으로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외국인도 많아져 관광수익도 크게 늘어난 상황에서 예산을 이유로 센터폐쇄는 말이 안 된다”고 비판했다.

또한 “영화진흥위원회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영화지원금, 홍보예산 등을 모두 알 수는 없지만 영화와 문화예산 관련 정부예산이 대다수가 삭감됐다”며 “영화진흥위원회만 예를 들면 2023년 220억원 예산이 내년에는 100억원으로 50% 이상 줄었다”고 말했다.

김 감독은 우리나라 영화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선 정치권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전략적 자산이 문화 콘텐츠라고 생각하고 정치적 규제를 좀 더 완화하고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며 “독립영화 지원 시 예산을 삭감하는 것이 아닌 예산을 더 확대시키고, 지역만의 특화된 영화콘텐츠가 개발될 수 있게 연구개발비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승용 기자 lsy2665@metroseoul.co.kr

바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나달, 1년 만에 투어 복귀...브리즈번 인터내셔널 출전
▲태권도 서건우, GP 파이널 남자 80kg 급 우승...올림픽 출전권 확보 /사진 뉴시스

▲‘국가대표 자격 잠정 박탈’ 황의조, 햄스트링 부상 이탈
▲수원 첫강등 충격...다른 팀 얼마만에 1부 승격했다



▲1경기 만에 복귀 예상됐던 김민재, 폭설 덕에 추가 휴식
▲타이거 우즈, 이를 연속 언더파에도 순위는 여전히 하위권 /사진 뉴시스